R 971-1 | 2022.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5차년도): 에티오피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Ethiopia

김종선 주경훈 이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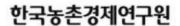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71-1 | 2022.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5차년도): 에티오피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Ethiopia

김종선 주경훈 이희성



연구 담당

김종선 | 연구위원 | 연구총괄, 1장, 2장, 4장, 5장, 6장 집필

주경훈 | 연구원 | 2장, 3장, 4장 집필 이희성 | 연구원 |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보고 R971-1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에티오피아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주)

ISBN | 979-11-6149-591-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이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한-에티오피아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에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며 협력 관계가 격상되었다. 이후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가 늘어나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다.

한편, 에티오피아 전체 면적의 68%가 경작 가능 면적이며, 농산업 분야가 전체 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업 가치사슬 관련 산업들이 낙후되어 있다. 농업 생산성 제고는 여전히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과 추진과제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여러 정부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에티오피아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이 에티오피와의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때 또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이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상

요 약

연구 목적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중장기적인 목표, 중점 추진 분야와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에티오피아의 농산업 현황과 농업가치사슬을 분석하고,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 전략 및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략을 고려한 對에티오피아 농업 분야의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분야의 지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국가개발 전략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 전략,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와 지원실적 등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 에티오피아 농업가치사슬 분석을 위해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EIAR)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2022년 6월 27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에티오피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에티오피아의 농업 가치사슬별 중요도와 '농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 내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제언 사항 등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 ○에티오피아의 국가 및 농업개발 전략, 개발협력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①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 ②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 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률 향상, ③ 축산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④ 주요 식량작물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절, ⑤ 학교급식, 영양 개선 프로그램 등 식품 정책을 통한 영양 개선, ⑥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 및 혼농 임업 등 6개 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였다.
-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 과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에티오 피아의 농림업 발전과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점협 력 분야를 △ 주요 곡물류 농업생산성 향상, △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 △ 농 업역량 강화로 설정하였다.
- 주요 곡물류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첫째, 중대형 관개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농업용 수로 건설 및 보수, 물관리 시스템 구축, 이용자 조직 활성화 등 관개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종자 및 비료 관련 R&D 지원, 종자 및 비료 생산 지원, 농가보급 시스템 구축 등 농업 투입재산업 활성화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생산자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 또는 협동조합연합(Union) 단위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기계 운용 및 부품 수리 교육 등을 실시하는 영농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대형 저장 창고 구축 또는 리모델링, 선별 공간 및 설비 지원, 관련 기술(건조, 저장, 선 별등) 지원 및 교육 등 농산물 수확 후 관리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에 티오피아 국가 차원의 농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품질인증 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정책컨설팅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 이 효율적일 것이다.
- 농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의 농업 지도 및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및 훈련 시설(영농교육센터 등)과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 조직 관리 및 운영교육, 농업교육(재배기술, 농가 경영기술, 시장정보 제공 등) 등을 실시할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연합(Union)을 대상으로는 금융 및 투입재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연합이 농산물 구매 및 판매, 가공,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예산(육성·지원 기금 등) 확보, 교육훈련시설 구축, 육성프로그램 및 세부 운영 방안 수립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과 농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필요가 있다.

ABSTRAC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Ethiopia

Background of Research

○ Ethiopia is Korea's major partner country in which various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ve been promo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goals, key areas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thiopia's agricultural sector and value chain, and to establish and present Ethiopia's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Ethiopia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ies of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used materials such as Ethiopi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Ethiopia's agricultural and rural strategy, Korea's key cooperation fields, and statistical data to derive measures to support Ethiopia's agricultural sector. ○ We commissioned the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EIAR), a cooperation institute for this study, to analyze Ethiopia's agricultural value chai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9 Ethiopian officials and related experts between 27 June 2022 and 8 August 2022. From the results, we derived the importance of Ethiopia's agricultural value chain, the importance and recommendations of the program in the 'Korean ODA Model in the Agricultural Sector'.

Main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 O We reviewed Ethiopia's national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Ethiopia. As such, six priorities were selected: increasing productivity of major grains; enhancing vegetable diversity and self-sufficiency by improving the agricultural value chain; expanding exports through improved livestock productivity and stability; controlling supply and demand through storage and management of major food crops; improving nutrition through food policies such as school meals and nutrition improvement programs;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forest conservation and agro-forestry.
- O Based on our survey of experts on Ethiopia's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rojects, Korea's key cooperation areas to achieve Ethiopia's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national strategic goals were set as follows: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control the quali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strengthen agricultural capabilities.

- O In order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irrigation infrastructure projects such as expansion and maintenance of medium and large irrigation facilities, construction and repair of agricultural waterways, establishment of water management systems, and revitalization of user organizations are needed. Similarly, R&D for agricultural inputs, support for seed and fertilizer production, and a system for distribution of inputs need to be considered.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farming mechanization projects that distribute agricultural machinery such as cultivators, tractors, and combines to primary cooperatives or union units, and provide training on agricultural machine operation and repairs.
- The following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o improve agricultural quality control. First, it is essential for agriculture cooperatives to improve post-harvest management. It is required to support building warehouses and provide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drying and sorting. Second, the Ethiopi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establishing standards and certification systems for quality and hygiene manage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 To strengthen agricultural capabilities, the Ethiopian government needs to build an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and support education and training

facilitie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operation education, and agricultural education including cultivation

technology, farm management technology, and market information is

recommended to revitalize agricultural cooperatives. It is needed to

support the union of producers' cooperatives in financial and material ways

so that i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purchasing, selling, processing, and

distributing agricultural products.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approache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o

establish related policies, systems, and detailed operational plans, and

secure budgets for education.

Researchers: Kim Jongsun, Joo Kyeonghun, Lee Heeseong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2.

E-mail address: sun589@krei.re.kr

ix

차 례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	5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5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9
1. 국가 현황 ·····	11
2. 농림업 현황	23
3. 농업 가치사슬 현황과 문제점	35
4.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43
제3장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53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	55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	62
3.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	72
제4장 중점협력 분야	75
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	····· 77
2.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85
1. 추진 방향	87

제6장	요약 및	결론 ·	 			 97
						400
잠고분	전	•••••	 	•••••	•••••	 103

표 차례

제2장

〈표 2-1〉에티오피아 정부 조직	· 15
〈표 2-2〉 주요 거시경제 현황	· 16
〈표 2-3〉에티오피아 GDP 내 산업별 비율 ······	· 17
〈표 2-4〉 업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 ······	· 18
〈표 2-5〉에티오피아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	· 19
〈표 2-6〉에티오피아 10대 교역국 ·····	20
〈표 2-7〉 KOTRA의 에티오피아 SWOT 분석 ······	· 21
〈표 2-8〉 주요 사회지표 ·····	· 22
〈표 2-9〉 월별 기온 및 강수량	· 24
〈표 2-10〉 토지이용 추세	· 25
〈표 2-11〉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21년) ·····	· 26
〈표 2-12〉에티오피아 對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21년)	· 27
〈표 2-13〉 생산량 지수(2014~2016=100) ······	· 28
〈표 2-14〉 주요 작물별 생산 현황(2020년 기준) ·····	· 29
〈표 2-15〉 주요 작물의 소비 용도별 비율	.30
〈표 2-16〉 주요 작물 연도별 생산액	· 31
〈표 2-17〉 주요 가축 사육 수	.32
〈표 2-18〉 가축 부산물의 용도별 비율 ······	. 33
〈표 2-19〉 2015년 산림 면적	· 34
〈표 2-20〉 연도별 산림 면적(1990~2015년)	· 34
〈표 2-21〉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 ·····	. 44
〈표 2-22〉 산업별 평균 성장률 현황 및 목표 ·····	45
〈표 2-23〉 GDP 내 부문별 지출 비율 ······	46
〈표 2-24〉 부문별 GDP 비율 ······	46
〈표 2-25〉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 ······	47
〈표 2-26〉 영양에 민감한 농업 전략의 목표, 결과 및 이니셔티브	. 50

제3장

	〈표 3-1〉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6~2020년) ··	56
	〈표 3-2〉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농업 및 지역개발 ODA 현황 ······	. 57
	〈표 3-3〉 2022년도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별 ODA 규모(확정액 기준) ···································	· 58
	〈표 3-4〉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제2차 국가협력전략 방향	. 59
	〈표 3-5〉 동남아프리카 중점 전략 및 목표·방향 ···································	60
	〈표 3-6〉한-에티오피아 진출전략	61
	〈표 3-7〉 주요 공여국 對에티오피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지원 규모(2015~2020년) …	62
	〈표 3-8〉 DAC 회원국 및 다자기관의 對에티오피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부문	
	지원액(2015~2020년) ·····	63
	〈표 3-9〉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의 문제점 ·····	64
	〈표 3-10〉 'Feed Africa'의 7가지 촉매제 ·······	65
저	4장	
	〈표 4-1〉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	. 79
	〈표 4-2〉 개발협력 과제별 중요도	· 81
	〈표 4-3〉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	82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에티오피아 지도
〈그림 2−2〉 FAO의 농지 분류 기준 ······· 25
〈그림 2-3〉에티오피아 곡물 시장 공급망 40
제3장
〈그림 3-1〉 USAID 에티오피아 국가 계획 ···································
〈그림 3-2〉 EU의 에티오피아 회복력 구축 모델 ···································
〈그림 3-3〉 5개의 지역 및 8개의 클러스터 70
제4장
〈그림 4-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77
〈그림 4-2〉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 78
제5장
〈그림 5-1〉에티오피아 농림업 개발협력 중점 분야와 추진과제 ······· 88

약어표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화분석법
BRT	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CAADP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포괄적 농업개발 프로그램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ECC	Ethiopian Cooperative Commission	에티오피아 협동조합 위원회
ECHO	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Aid Office	유럽공동체 인도적지원 사무소
ECX	Ethiopia Commodity Exchange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EFRI	Ethiopian Environment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환경산림과학원
EIAR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
EPRDF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세계식량농업기구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IMS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토지정보시스템
MEFCC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oAN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	농업천연자원부
MoLF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축산수산부
NNP	National Nutrition Program	국가영양프로그램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PSNP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RESET	Resilience building program in Ethiopia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
TVET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직업교육훈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WB	World Bank	세계은행

제1정	<u>}</u>
서론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허장 외(2018)가 수행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의 5차년도 과제로 수행되었다. 1차년도(2018)에는 정부의 정책, 개발협력수요, 수원국의 태세, 기업 여건의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21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총 16개의 중점협력국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베트남, 네팔, 인도, 볼리비아, 가나, 세네갈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 대상국으로는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르완다, 우간다가포함되었다. 이후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내 신규 5개국(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이집트)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4차년도에는 몽골과 더불어 중점협력국에 추가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5차년도에는 캄보디아, 파라과이, 에티오피아를 분석하여 총 19개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중 에티오피아의 농림업 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수립의 연구를 수행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지만 국민 1인당 소득은 85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Anagaw, 2021, p.9). 특히 농촌지역의 빈곤율은 2016년 기준 26%로 5년 전의 30%에 비해 약 4%p 하락하며 더딘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시기에 도시지역의 빈곤율이 15%를 기록하며 2011년에 비해 무려 11%p나 감소한 상황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농촌 지역이 교육을 포함한 주요 국가 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1) 따라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림업 분야의 개발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에티오피아는 2012년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협력전략에 포함된 이후로 제2차 국가협력전략(2016) 및 제3차 중점협력국(2021)에 포함되며 한국과의 협력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7개 국가(우 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가나, 이집트) 중 2022년 에티오피아 의 ODA 지원 규모는 약 1,200억 원에 달해 아프리카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큰 규모이다.

에티오피아의 열악한 농촌 상황과 한국의 지원 추세를 미루어 앞으로 한국의 對에티오피아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 분야 내 에티오피아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농림 업 분야는 지역개발이라는 분야에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구체 적인 추진 전략이 제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에티오피아의 농 업 및 농촌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개발전략과 일치하는 국제개발수요를 도출하 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¹⁾ The World Bank 보도자료. (2020. 4. 16.). "Ethiopia Poverty Assessment: Poverty Rate Declines, Despite Challenges."

2. 목적

이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농림축산업과 농촌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농림축산식품 분야 내 우리나라와에티오피아의 전략적 중점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농업분야의 국별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제시하고, 향후 농업개발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한다.

3. 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이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농업 및 농촌 분야의 지원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국가 개발 전략서,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에티오피아 농업·농촌 지원 전략, 한국의 중점협력 분야 및 에티오피아에 대한 지원실적 등 여러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에티오피아의 농업·농촌의 현황과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의 연구기관인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EIAR)과 협력하여 농업 분야의 가치사슬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2022년 6월 27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에티오피아 내 개발협력 기관 및 농업 분야 종사자 등 총 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에티오피아의 농업 가치사슬별 중요도와 '농업 분야 한국형 ODA 모델' 내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제언 사항 등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과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의 경제, 사회, 정치를 포함한 국가현황과 농업 생산, 농지, 농산물 교역 등 농림업 분야의 현황에 대해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국가 전략과 농림업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對에티 오피아 개발협력 현황, 실적 및 전략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에티오피아 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분야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4. 선행연구 검토

김선정, 김영환(2021)은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행 개발협력의 문제를 확인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혜국의 관점에서 에티오피아의 문제점으로는 원조지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노력과 주인의식의 부족, 개발협력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 낙후된 사회 제반 환경 및 제도를 지적되었다. 반대로 공여국의 경우 에티오피아 일부의 상황을 전 체사례로 오인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선진 사례를 적용하려는 행태, 개도국의 상황 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및 계획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공 여국이 아닌 수혜국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와 전후 맥락 등을 파악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간극을 확인 하여 향후 시스템적·행정적 이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이끌었다.

이진상, 변웅(2012)은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개발 역량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와 에티오피아·케냐 간 국제개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2개국의 사회경제개발 과정과 역량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 계획과 전략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협력 우선순위로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박영호 외(2012)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에 대한 ODA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아프리카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의 역량을 고려하여 농업과 환경, 인프라 및 인적자원의 4대 집중 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및 역량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의 세부 지원사항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소규모 관개시설 지원, 수확 후 손실 감소를 위한 저장시설지원 등이 나열되었다.

황재희 외(2013)는 농업발전단계의 유형화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국제농업개 발협력 방향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 및 군집분 석 방법을 적용하여 발전단계를 분류하였다. 2010년도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생산 성이 낮고, 농지 면적이 제한적이며, 수자원 및 시설 접근성이 열악하고, 농산물 교역 및 기술발전 수준이 미미한 전통적인 농업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하였 다.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0년 에티오피아의 농업 부문은 급속히 성장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가경제규모 대비 농업의 비중은 높으나, 관개시설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선진 농업 기술 도입, 수확 후 관리와 저장,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은 사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외 다른 아프리카의 농업발전단계 또한 분석하여 국가별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를 고려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영출, 김학실(2019)은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CPS)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가협력전략과 사업 간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로 에티오피아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CPS 내 성과목표가 추상적이며 수원국의 발전계획만 고려한 점, 에티오피아의 CPS와 일부 사업 간의 정합성이 낮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전략수립 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 규모 및 분야를 파악하고 개별 사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의 활용을 장려하였다.

앞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행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협력가능 분야 및 전략 이 구체적이지 못한 형태로 제시되었다. 또한 농업을 협력 분야로 선정하였으나 개발협력에 대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의 사업수요를 파악하거나, 사업의 정합성을 분석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농업이라는 분야에 대한 심 층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에 티오피아의 전략, 협력 수요, 국제개발 사회에서의 지원 등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농업 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1.1. 일반 현황

에티오피아(Ethiopia)의 정식 국명은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이며,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가장 오래된 독립 국가이다. 동쪽으로는 소말리아, 서쪽으로는 남수단, 남쪽으로는 케냐, 북쪽으로는 수단과 에리트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은 1,104천 km²로 한반 도의 5배, 한국의 11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수도는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이며 수도의 면적은 530.14km²로 서울의 0.9배에 해당한다. 평균 해발고도는 약 2,500m로 아디스아바바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다(외교부, 2019, p.4, p.6, p.10).

고원지대는 고산기후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으나 저지대는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이다. 연 평균 기온은 20℃이며 연 평균 강수량은 지역적 편자가 존재하나 1,000~1,500mm 정도로 대부분 우기인 6~9월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다(외교부,

2019, p.11).

에티오피아는 연방국가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아홉 개의 자치주와 두 개의 특별 시로 이루어져 있다. 자치주는 티그라이 주(Tigray), 아파르 주(Afar), 암하라 주 (Amhara), 베니샹굴구무즈 주(Benishangul-Gumaz), 감벨라 주(Gambela), 하라리 주(Harari), 오로미아 주(Oromia), 소말리 주(Somali), 남부국민민족인민주(Southern Nations, Nationalities and Peoples)가 있으며 수도인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와 디레다와(Dire Dawa)가 두 개의 특별시에 해당한다. 행정구역 체계는 도(Region)-시(City)-지구(Zone)-위레다(Woreda)-케벨레(Kebele)-번지(House Number)로 구 성되어 있다(원소연, 2011, p.111).

에티오피아는 고유한 달력 문화(에티오피아력)를 가지고 있다. 1년은 13개월이며, 1개월은 30일로 구성되어 있다. 낮과 밤을 구분하기 위해 24시간제가 아니라 각 12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24시간제에서 일출시인 6시를 0시로 하며, 일몰시인 18시를 12시로 계산하고, 다시 일몰시인 18시를 0시로 하며 다음 아침일출시인 6시가 12시가 되는 방식이다(외교부, 2019, p.11).

에티오피아의 전체 인구수는 2018년 기준 약 1억 535만 명으로 연평균 2.5%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종은 오로모족, 암하라족, 티그라이족을 포함한 약 80여 개로 추정되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피델(Fidel)이라는 고유문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어로는 암하라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공용어와 각종 소수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일찍부터 동방 정교회를 받아들여 인구의 절반이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고있으며, 이슬람교도 또한 인구의 34%를 차지하며 이슬람교도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종교 간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며, 정교회및 이슬람교의 기념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외교부, 2019, pp.72-74).

〈그림 2-1〉에티오피아 지도



자료: Mapsland(https://www.mapsland.com/africa/ethiopia). 검색일: 2022. 5. 23.

1.2. 정치

1931년부터 입헌군주제였던 에티오피아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군사쿠데타로 1974년에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으며, 1987년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군부의 기구인에티오피아 임시 군사 평의회(EPMAC)가 폐지되고 당시 쿠데타를 지휘했던 맹기스투(Mengistu) 소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맹기스투가 에티오피아 내전에서 패배하면서 1991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였고, 멜레스(Meles Zenawi) 정부가 1995년 내각책임제 및 연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을 출범시켰다(원소연, 2011, p.111). 이후 2000년 5월 제2차 총선에서 집권당인 에티오피아 인민혁명민주전선 (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EPRDF)²⁾이 연방의회의 과

²⁾ EPRDF는 TPLF(티그레이 인민해방전선), ADP(암하라 민주당), ODP(오로모 민주당), SEPDM (남부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운동)의 총 4개 단체로 구성된 정당으로 사실상 에티오피아 내 EPRDF를 견제 할만한 야당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1991년 이후부터는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외교부, 2019. p.33).

반수를 차지하였고, 멜레스 총리는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2001년 학내 민주화 요구로 시작된 학생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발전하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당시 네가쏘(Negasso) 대통령이 사임하고 기르마(Girma)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개각을 단행하였다. 2005년과 2010년에 실시한 3차와 4차 총선에서도 EPRDF가 연방의회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멜레스 총리 또한 4선을 달성하였다.

2012년 멜레스 총리의 서거 이후에는 하일레마리암(Hailemariam)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총리직을 맡고 물라투(Mulatu) 대통령이 취임하였지만, 총리의 지도력 불만이 증대되면서 하일레마리암 총리가 사임을 하고 당시 집권여당의 당수였던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가 신임 총리로 선출되었다(외교부, 2019, pp.20-22).

2018년 4월 취임한 아비 아흐메드 총리는 번영당을 창당하여 국민 통합, 경제 발전을 위한 개혁·개방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이후 2021년 6월 총선에서 번영당 (집권 여당)이 전체 연방의회 436석 중에서 410석을 차지하였고, 국민의 재신임을 받은 아비 총리가 2021년 10월에 신정부를 출범하였다. 하지만 티그라이 내전 사태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될 정도로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며, 서방과의 채무 개선,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다수의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20%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역·인종 간 갈등, 내전 및 총선 불복 세력 등의 요인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2021, p.9).

2022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정부 조직은 22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 물류부를 포함한 도시·인프라개발부, 관광부, 보건부, 여성사회부, 직업기술부, 기획개발부 등의 부처는 여성이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 에티오피아 정부 조직

부처명(국문)	부처명(영문)	현직 장관
평화부	Ministry of Peace	Binalf Andualem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Abraham Belay
통상·지역통합부	Ministry of Trade and Regional Integration	Gebremeskel Chala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meke Mekonnen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Ahmed Shide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Gedion Timotheos
농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Omer Husen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Melaku Alebel
혁신기술부	Ministry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Bellete Molla
교통물류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Logistics	Dagmawit Moges
도시·인프라개발부	Ministry of Urba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Chaltu Sani
수자원에너지부	Ministry of Water and Energy	Habtamu Itefa
광업부	Ministry of Mines	Takele Uma
관광부	Ministry of Tourism	Nassise Cahli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Birhanu Nega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Liya Tadesse
여성사회부	Ministry of Women and Social Affairs	Ergogie Tesfaye
직업기술부	Ministry of Works and Skills	Muferiat Kamil
문화체육부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	Kejela Merdasa
국세부	Ministry of Revenues	La'qe Ayalew
기획개발부	Ministry of Plan and Development	Fitsum Assefa
저지대개발부	Ministry of Irrigation and Lowlands	Aisha Mohammed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https://www.pmo.gov. et/). 검색일: 2022. 7. 11.

1.3. 경제

에티오피아는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89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 최빈 국에 속해있으나, 최근 10년간 약 8~10%의 높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은 7.5%를 기록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인 3.4%, 사하라 이남 지역의 성장률 2.8%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시장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무역 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외교부, 2019, p.59).

2020년 실질성장률은 6.1%로 이전보다 감소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 실질 성장률은 4%대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수지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나 2021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2⟩ 주요 거시경제 현황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명목 GDP	십억 비르	2,202.1	2,690.8	3,374.3	3,904.2	4,940.8
1인당 명목 GDP	달러	2,154	2,315	2,423	2,492	2,599
실질성장률	%	6.8	8.4	6.1	4.0	4.6
소비자물가상승률	%	13.8	15.8	20.3	21.2	18.3
상품 수출	백만 달러	2,705	2,746	3,253	4,197	4,746
상품 수입	백만 달러	13,726	13,056	11,762	14,195	14,295
무역수지	백만 달러	-11,021	-10,310	-8,509	-9,998	-9,549
환율(연평균)	ETB/US\$	27.43	29.07	34.93	43.39	51.97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3,987	2,993	3,046	3,185	3,362

주: 2020년까지는 실제 데이터이며 이후는 전망치를 나타냄.

아프리카개발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 내란과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2%로 떨어졌으며 2020년 인플레이션율은 20.6%에 달해 목표치인 8%를 훨씬 상회하였다. 공공부채는 GDP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의 57%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수출실적의 부진과 수입 집약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해 위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AfDB, 2021, p.119).

2018년 기준 에티오피아 GDP의 41%는 서비스업이 차지하였고, 농림수산업 32%, 제조업 21%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약 1%가량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또한 2%가량 증가한 23%를 기록하였다. 반면 농림수산업의 비율은 30%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2-3〉에티오피아 GDP 내 산업별 비율

단위: 백만 달러, %

78	YIOUE	2018년		2019년		2020년	
구분	산업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업	농림수산	25,698	32%	26,683	31%	27,818	30%
제조업		17,051	21%	19,175	22%	21,021	23%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5,155	6%	5,494	6%	5,990	7%
	건설업	11,897	15%	13,681	16%	15,031	16%
서비스업		32,490	41%	36,113	42%	38,048	42%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15,046	19%	16,744	19%	17,715	19%
	교통·운송 및 통신	3,626	5%	4,388	5%	4,436	5%
	기타	13,818	17%	14,981	17%	15,898	17%
총부가가치		76,006	-	82,876	_	87,973	-

주: 금액은 생산가치에서 중간소비가치를 빼 총부가가치를 의미하며, 2015년 실질(불변)가격 기준임,

<표 2-4>를 통해 업종별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은 광업 및 채석업이었으며, 농림수산업, 보건 및 사회사업 등은 1~2%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송·통신업 등은 2015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UNCTADStat(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 ChosenLang=en). 검색일: 2022. 5. 2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4〉 업종별 불변가격 GDP 성장률

단위: %

							- 단귀· 70
구분	산업명	2015/16(A)	2016/17	2017/18	2018/19	2019/20(B)	B-A
농업, 수	농업, 수렵 및 임업		6.7	3.5	3.8	4.3	2.0
	작물	3.4	8.2	4.7	3.0	4.7	1.3
	축산 및 수렵	1.5	4.2	0.6	6.0	3.3	1.8
	임업	2.2	3.6	3.3	3.8	3.9	1.7
수산업		0.1	0.5	11.3	2.3	2.0	1.9
광업 및 :	채석업	3.3	29.8	20.8	21.9	91.4	88.1
제조업		18.4	24.7	6.8	7.7	7.5	-10.9
	중·대규모 제조업	22.9	19.2	8.4	10.0	9.8	-13.1
	영세 및 소규모 제조업	2.5	36.9	3.7	3.0	2.6	0.1
전기 및 -	전기 및 수도업		12.4	9.6	4.0	7.2	-7.8
건설업		25.0	20.7	15.7	15.0	9.9	-15.1
도소매업		8.2	6.5	11.4	11.7	6.4	-1.8
음식·숙박	박업	15.6	0.1	6.1	9.0	2.2	-13.4
운송·통선	닌업	13.7	15.1	6.4	21.0	1.1	-12.6
금융중가	업	9.6	18.3	10.7	13.6	10.2	0.6
부동산·임	임대업 및 사업 활동	3.7	4.4	6.2	7.5	9.5	5.8
공공행정	및 국방	7.4	13.2	8.9	9.0	2.3	-5.1
교육업	교육업		3.2	3.6	3.5	1.8	-7.0
보건 및 사회사업		10.8	7.0	8.3	14.3	12.9	2.1
기타지역	기타지역사회·사회 및 개인서비스		4.5	5.1	6.3	2.5	-0.5
취업자기	취업자가 있는 민간 가계		3.5	3.9	2.5	2.3	-2.0
계		8.0	10.3	7.8	9.0	6.2	-1.8
7. 2017 (2017)							

주: 2015/2016 에티오피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자료: Anagaw(2021, p.20)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021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출품목은 커피/향신료, 채소, 산수목/꽃, 채유용 종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품목의 수출액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에티오피아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으로는 보일러/기계류, 동식물성 유지, 광물성 연료/에너지, 곡물 순이었다. 광물성 연료/에너지와 보일러/기계류는 2019년 대비 2021년의 수입액은 감소하였으나, 동식물성 유지의 수입액은 2019년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한 약 13억 달러로 나타났다.

⟨표 2-5⟩ 에티오피아 10대 수출 및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E III.	기간 된데
순번	人 ᄎᄑᄆᄜ		수출액		人이프무며	수입액		
군인	수출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품목명	2019년	2020년	2021년
1	커피/향신료	811.7	826.3	1,209.2	의료용품	620.9	570.5	783.1
2	채소	546.6	591.7	693.9	동식물성 유지	311.6	615.7	1,322.1
3	산수목/꽃	356.2	452.3	518.2	전기기기/TV/VTR	976	968.7	919.1
4	채유용 종자	419	443.9	413.6	보일러/기계류	2,076.5	1,721.5	1,633.9
5	육과식용설육	77.6	70.2	99.7	곡물	422.9	478.4	1,020.2
6	의류(편물제)	74	89.7	82.5	광물성 연료/에너지	2,582.7	1,704.3	1,227.1
7	의류(편물제 외)	85.8	49.6	64.3	플라스틱과 그 제품	635	558.9	605.8
8	원피가죽	59.1	29.8	29.8	일반차량	757.6	732.5	919.8
9	동물	59.3	42.2	33.9	철강	820.2	628.5	505.2
10	전기기기/TV/VTR	20.2	30.6	20.8	비료	485.4	532.3	624.9
	합계	2,667.1	2,760	3,323.7	합계	13,442.4	12,134.1	13,507.8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2. 21.). "2022년 에티오피아 경제의 향방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에티오피아의 10대 교역국으로는 네덜란드, 미국,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위 10개 교역국과의 수출 및 수입액의 규모는 전체 수출 및 수입액의 68%와 71%를 각각 차지하였다. 에티오피아의 수출교역국으로는 소말리아, 네덜란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상위권을 기록하였으며, 중국, 인도, 미국 등과의 수입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10대 수입국으 로 집계되었다.

〈표 2-6〉에티오피아 10대 교역국

단위: 백만 달러

			수출액		'04I 3			수입액		'01I 3
순 번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점유율	국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점유율
1	네덜란드	261.9	323.7	357.1	11%	중국	3,666.3	3,550	3,535.5	26%
2	소말리아	268.6	313.9	386.6	12%	인도	1,113.3	1,212.4	2,198.9	16%
3	사우디아라비아	196.6	219	258.1	8%	네덜란드	238.2	79	131.1	1%
4	미국	299.9	282	346.4	10%	터키	547.8	619.6	658.5	5%
5	독일	151.7	143.9	242.7	7%	쿠웨이트	1,857.6	597	668.1	5%
6	아랍에미리트	133.4	177.3	199.1	6%	말레이시아	185.8	209.9	624.9	5%
7	일본	124.8	103.2	110	3%	모로코	298.2	307.5	394.9	3%
8	지부티	99.4	126.7	136.9	4%	미국	717.5	589.7	951.2	7%
9	인도	107.5	48.5	100.8	3%	인도네시아	232	242.2	209.2	2%
10	이스라엘	108.5	99.9	106.6	3%	한국	157.2	159.8	220.7	2%
	총계	1,752.3	1,514.4	2,244.3	68%	총계	9,013.9	7,567.1	9,593	71%
	전 세계	2,667.1	2,760	3,323.7	100%	전 세계	13,442	12,134	13,507	100%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2. 2. 21.). "2022년 에티오피아 경제의 항방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노동력 및 인구를 에티오피아의 강점으로 분석하였으나, 내륙 국가의 한계로 인한 과도한 물류비용, 부족한 인프라, 낮은 구 매력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였다. 하지만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장 개방 정책,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를 통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어 향후 기회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2-7〉 KOTRA의 에티오피아 SWOT 분석

강점	약점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인구 1억 명이 넘는 큰 내수시장 아프리카 허브 공항 보유 	 고관세 및 물류비용 과다(내륙 국가) 불투명한 행정(세무, 관세) 시스템 전기, 물 등 기본 인프라 부족 낮은 구매력
기회	위협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제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인센티브 및 산업단지 조성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개방 정책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 	외화 부족에 따른 결제 대금 지연 정세 불안 및 대외관계 악화 리스크 저가품 및 위조품 범람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29).

1.4. 사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도시 인구율은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80여 개로 추정되는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족 간 갈등이 내재적 위험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구의 과반수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국가설정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또한 23.5%에 달하다.

에티오피아의 법적 의무교육 기간은 8년이나 남성의 경우 평균 취학기간은 4.3 년, 여성은 그보다도 훨씬 적은 1.7년으로 나타났다(외교부, 2019, pp.70-72). 반면 5세에서 17세 아동 노동인구의 비율은 48.6%에 달해 심각한 아동노동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외에도 5세 미만 아동의 36.8%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하여 열악한 영양 및 보건환경에 처해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HDI 지수는 2000년 0.292에서 2019년 기준 0.485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189개 국가 중 173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알수 있다.3)

⟨표 2-8⟩ 주요 사회지표

구분	내용
기대수명(세)	66.6
5세 미만 아동 영양 부 족 률(%)	36.8
15세 이상 성인 문자 해독률(%)	51.8
	1.7
 평균 취학 기간-남성(년)	4.3
지니계수	35
국가설정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23.5
 안전한 식수 이용 인구 비율(%)	11
5~17세 아동 노동 인구 비율(%)	48.6
 15~64세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6.3
 65세 이상 인구(백만 명)	3.9
5세 미만 인구(백만 명)	16.6
도시 인구율(%)	21.2

주: 해당 지표는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15세 이상 성인 문자 해독률은 2018년 기준임.

1.5. 우리나라와의 관계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총 3,518명을 파병하였으며 그후 1963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 멜 레스 총리 방한 이후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2011년 한-에티오피아 정상 의 상호 방문 이후에 한국이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며 양국 관계가 격상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산업화를 위해 제조업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외교부, 2019, p.84, p.96).

2019년 기준 에티오피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은 명성병원, KOICA, 에티오피아 진출 한국기업 직원 등 약 400여 명 정도이며(외교부, 2019, p.101),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MNG). 검색일: 2022. 5. 27.

³⁾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s://hdr.undp.org/data-center/human-development-index#/indicies/HDI). 검색일: 2022. 8. 5.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지위가 인정된 914명 중 121명이 에티오피아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난민 인정자 중 13.2%에 해당한다.4)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 현황은 1996년부터 2018년 누계 총 237건으로 신고 되었으며, 규모는 약 3,800만 달러 정도이다. 2004년 명성병원이 의료서비스와 교 육 분야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의류제조업체인 BM Garment(2010), LG전자 (2013), 우암(2013), EKOS(2015), 영원무역(2017) 등 17개 정도의 한국기업이 에 티오피아에 진출해 있으며(외교부, 2019, p.91), 2019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동아 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개장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고 유상원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22년 기준 솔루타-게 브라구라차 전력망구축사업, 모조-하와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고레-테피 연결도로 개선사업, 남부 국가전력망 확충사업, 지하수 관개개발과 지역개발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토지정보시스템(LIMS) 구축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센터 건립사업등 총 11개 사업이 승인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2).

2. 농림업 현황

2.1. 농림업 환경

농업은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7,360만 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경작면적은 1,800만 ha로 여전히 많은 토지가 관개용수의 부족으로 인해 활용되지

⁴⁾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20). 검색일: 2022. 8. 5.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작면적 가운데 수자원을 활용한 관개 가능 농지 면적은 1,000만 ha이지만 관개시설을 통한 농업 생산은 3%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조현묵, 2014, p.109).

에티오피아의 넓은 국토 면적과 다양한 지형은 지역별 강수량 격차뿐만 아니라 국토 내 다양한 기후를 보여준다. 에티오피아 남쪽은 강수량과 습도가 높은 반면, 아프리카 동쪽은 사막과 같은 조건으로 매우 건조하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중앙과 북쪽 고지대 지역은 사계절 쾌적한 기후를 보여준다. 에티오피아의 우기는 크게 온건기(Bega, 베가), 소우기(Belg, 벨그), 대우기(Kiremt, 키렘)로 구분되며, 대우기인 키렘은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발생하고 연간 강수량의 50~80%를 차지한다. 에티오피아 중부와 북부 일부 지역은 산발적인 소우기인 벨그를 경험하며, 강수량이 많지 않지만,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티오피아 남부지역은 2월부터 5월까지 소우기와 10월부터 12월까지 온건기를 가지고 있다.5)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에티오피아의 평균 기온 및 강수량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 기온은 23℃로 계절별 기온 편차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강수량은 연간 평균 834.3mm를 기록하였다.

⟨표 2-9⟩ 월별 기온 및 강수량

단위: ℃, mm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최고기온	29.8	31.1	31.5	31.5	30.8	30.0	28.5	28.2	29.4	29.3	29.1	29.1	-
평균기온	21.6	23.0	24.1	24.6	24.3	23.9	23.0	22.7	23.1	22.5	21.8	21.3	23.0
최저기온	13.5	15.0	16.8	17.9	17.9	17.8	17.6	17.1	16.9	15.8	14.5	13.4	-
 강수량	11.7	14.4	40.9	86.5	103.9	77.9	130.9	143.7	95.6	80.9	34.6	12.8	834.3

주: 1991~2020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자료: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ethiopia/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2. 5. 27.

⁵⁾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ethiopia/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2. 5. 27.

2.2. 농지

FAO 통계자료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에티오피아 농지 및 경작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산림 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림이 꾸준하게 농지로 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10〉 토지이용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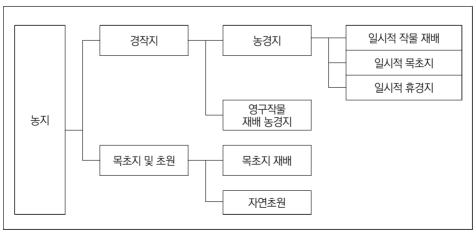
단위: 천 ha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지	37,121	37,332	37,540	37,903	38,189	38,476
경작지	17,121	17,332	17,540	17,903	18,189	18,476
- 농경지	15,721	15,846	15,969	16,187	16,191	16,195
* 일시적 작물 재배지	11,865	11,967	12,078	12,211	12,270	12,297
* 일시적 목초지	1,835	1,831	1,828	1,860	1,872	1,886
* 일시적 휴경지	2,019	2,046	2,062	2,114	2,048	2,011
- 영구작물 재배 농경지	1,400	1,486	1,570	1,716	1,998	2,281
목초지	17,433	17,360	17,287	17,214	17,141	17,068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QCL). 검색일: 2022. 8. 5.

FAO가 제시하는 농지에 대한 분류체계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FAO의 농지 분류 기준



자료: FAO(2022, p.3)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5년 기준 에티오피아 농민의 약 64%는 1ha 미만의 면적에서 농작물을 생산하였으며, 약 40%는 0.5ha 미만의 면적에서 농작물을 생산하였다. 2018년에는 1,600만 명의 소작농들이 전체 곡물의 95%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였다(CSA, 2018).

2.3. 농산물 교역

2021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커피·차·향신료(HS 09), 채소(HS 07), 채유용 종자·과실·공업 및 의약용 식품·사료식물(HS 12), 산수목·꽃(HS 06)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에티오피아에서 수입액이 가장 큰 품목으로는 곡물(HS 10), 동식물성 유지(HS 15), 당류·설탕과자(HS 17), 채소(HS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21년)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01	산동물	33,626	8,959
02	육류	94,072	948
04	낙농품	886	25,583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2,436	646
06	산수목·꽃	290,181	4,341
07	채소	648,553	152,872
08	과실·견과류	14,782	15,869
09	커피·차·향신료	1,209,514	9,583
10	곡물	11,639	1,683,142
11	제분공업 생산품	2,911	140,409
12	채유용 종자·과실·공업 및 의약용 식품·사료식물	407,186	18,988
13	식물성 액즙	3,071	5,797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9	114
15	동식물성 유지	3,551	1,397,640
16	육류·어류 조제품	46	2,986
17	당류·설탕과자	218	592,976
18	코코아	0.4	3,893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12,441	83,988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1,791	14,487
21	기타 조제 식료퓸	2,271	124,414
22	음료·주류·식초	3,485	21,774
23	식품 웨이스트·조제 사료	7,134	6,698
24	연초류	29	6,027
	Й	2,749,832	4,322,134

주: 농식품은 HS 01~24에 해당(단, HS 03-어류는 제외).

2021년 8월 기준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105번째 교역국, 97번째 수출대상국, 101 번째 수입대상국에 불과하나,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상위 교역국가(수출 및 수입 포함)로 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무역규모는 1.5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p.23).

하지만 에티오피아對 한국의 수출입 규모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커피로 나타났으 나, 그 외 품목에 대한 수입액은 크지 않다. 반면, 에티오피아가 한국으로부터 수 입하는 품목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곡물로써 2021년 기준 약 867만 달 러어치를 수입하였다.

〈표 2-12〉에티오피아 對한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2021년)

단위: 천 달러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04	낙농품	0.2	1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_	80
06	산수목·꽃	1,128	_
07	채소	66	_
09	커피·차·향신료	81,153	-
10	곡물	-	8,675
11	제분공업 생산품	0.2	0.05
12	채유용 종자·과실·공업 및 의약용 식품·사료식물	2,154	1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HS 코드	품목	수출액	수입액
15	동식물성 유지	-	236
16	육류·어류 조제품	-	5
18	코코아	-	1
19	곡물·곡분의 조제품	-	2
21	기타조제식료퓸	-	8
22	음료·주류·식초	-	7
	Л	84,501.4	9,015.05

주: 농식품은 HS 01~24에 해당(단, HS 03-어류는 제외)하나, 수출액 및 수입액 기록이 없는 코드는 삭제.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4.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2.4. 농림업 생산

2.4.1. 생산량

에티오피아의 농업생산지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2015년에 농업의 생산지수는 101.16이었으나 2020년 기준 119.84를 기록하며 5년간 18포인트 이상 상회하였다. 이 밖의 곡물, 축산, 채소 및 과일 부문에서도 2015년 대비 2020년 생산지수는모두 17포인트에서 최대 36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생산지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3〉 생산량 지수(2014~2016=100)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	101.16	102.06	106.24	106.3	110	119.84
곡물	101.28	103.82	111.9	110.91	116.28	118.88
 축산	101.5	99.68	105.46	107.31	115.13	126.93
채소 및 과일	98.71	101.18	103.42	107.97	106.59	134.74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PP). 검색일: 2022. 8. 5.

2020년 기준 에티오피아에서 수확 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은 옥수수(2.4백만 ha)로 나타났으며, 밀(1.8백만 ha), 보리(90만 ha), 커피(86만 ha), 참깨(37만 ha)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작물은 또한 약 1천만 톤을 생산한 옥수수였으며, 밀(5.5백만 톤), 보리(2.3백만 톤), 고구마(1.6백만 톤), 사탕수수(1.3백만 톤) 순이다. 옥수수와 밀, 보리 등이 생산량과 수확 면적이 가장 높은 작물이었으나, 생산성 기준으로는 사탕수수가 가장 높았으며, 구황작물인 고구마와 감자의 생산성 또한 다른 작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바나나, 아보카도, 마늘, 토마토의 생산성이 6.5~9.4톤/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4〉 주요 작물별 생산 현황(2020년 기준)

구분	수확면적(ha)	생산량(톤)	생산성(톤/ha)
아보카도	30,588	245,336	8.02
바나나	95,954	898,355	9.36
보리	897,016	2,261,265	2.52
병아리콩	220,719	457,319	2.07
커피	856,592	584,790	0.68
 땅콩	113,515	205,069	1.81
옥수수	2,363,507	10,022,286	4.24
감자	85,988	1,141,872	13.28
 쌀	62,551	189,649	3.03
 참깨	369,897	260,258	0.70
 콩	83,797	208,676	2.49
사탕수수	29,520	1,345,431	45.58
고구마	62,117	1,598,838	25.74
밀	1,829,051	5,478,709	3.00
토마토	6,434	41,948	6.52
마늘	15,980	114,945	7.19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QCL). 검색일: 2022. 8. 5.

2020/2021년 에티오피아 통계청이 주요 작물의 생산량별 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산량이 높은 옥수수, 고구마, 보리 등의 작물은 60% 이상이 농가에서 소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깨, 콩, 땅콩의 경우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약 60% 이상으로 나타나 가구에서 소비하는 비중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보리, 콩, 밀, 마늘과 같은 작물의 경우, 농가가 추후 생산을 위한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비율이 1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탕수수와 고구마, 옥수수는 생산량의 2~5%가량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다.

⟨표 2-15⟩ 주요 작물의 소비 용도별 비율

пн	생산량			농작물	소비(%)		
구분	(Quintal)	가구 소비	종자	판매	현물 임금	가축 사료	기타
아보카도	2,453,356	45.59	0.27	49.4	0.67	0.78	3.29
바나나	8,983,548	44.02	0.33	50.99	0.56	1.08	3.03
보리	23,391,098	62.29	16.46	17.57	0.52	0.83	2.33
병아리콩 (Red)	3,740,361	47.60	16.62	33.49	0.55	0.29	1.46
병아리콩 (White)	832,831	46.91	13.7	36.98	0.44	0.33	1.65
커피	5,847,895	45.02	0.73	50.88	0.86	0.09	2.42
땅콩	2,050,868	23.06	14.66	59.44	0.91	0.08	1.86
옥수수	105,570,935	72.07	6.54	16.1	0.73	2.07	2.48
감자	11,418,717	62.32	11.59	23.84	0.59	0.16	1.5
쌀	2,682,235	47.08	13.82	35.58	0.99	0.44	2.09
참깨	2,602,576	13.16	10.65	71.87	2.16	0.14	2.02
 콩	2,086,763	19.48	14.46	61.56	1.32	0.4	2.79
사탕수수	13,454,310	43.97	1.99	44.31	0.66	5.8	3.27
고구마	15,988,384	73.07	1.27	19.01	0.56	3.82	2.27
밀	57,801,306	55.91	15.87	24.37	0.69	0.46	2.7
토마토	419.482	58.92	0.48	38.25	0.22	0.12	2.0
마늘	1,149,447	58.35	12.66	27.74	0.07	0.03	1.16

주: 1 Quintal은 100kg에 해당함.

자료: Central Statistical Agency(2021, p.15).

연도별 작물별 생산액의 경우, 넓은 수확 면적과 많은 생산량을 가진 옥수수, 밀, 보리의 생산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작물 생산액은 2016년에 비해 2020년의 생산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참깨, 사탕수수, 고구마는 생산액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2-16⟩ 주요 작물 연도별 생산액

단위: 천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아보카도	14,972	18,762	19,536	24,075	56,525
바나나	118,777	108,914	110,663	119,029	198,224
보리	784,170	692,095	617,474	839,580	798,362
병아리콩	223,531	251,353	231,094	219,025	230,161
커피	571,838	547,627	602,903	588,259	712,879
땅콩	108,954	122,012	121,103	131,560	172,352
옥수수	1,864,241	2,210,127	2,132,507	2,030,493	2,111,949
감자	155,691	163,729	157,669	156,220	192,945
쌀	58,829	65,325	74,338	73,809	82,036
참깨	323,696	309,238	243,696	317,397	314,501
콩	32,571	34,669	59,923	50,368	83,667
사탕수수	174,091	140,494	160,042	185,402	166,393
고구마	289,008	235,543	197,939	229,845	209,291
밀	1,820,291	1,862,455	1,940,720	2,132,140	2,197,701
토마토	8,386	8,211	6,972	10,331	12,401
마늘	174,180	223,870	245,875	191,679	144,386

주: 2014~2016년 불변가격 기준.

2.4.2. 축산물 생산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가축 수를 지닌 국가이다. 거의 모든 농가에서 가축을 소유하고 있으며, 축산 자산은 농장당 평균 720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전체 가축 생산량은 2008년부터 거의 매년 6%씩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의 80%는 가축 수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현대적 투입재 사용 및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QCL). 검색일: 2022. 8. 5.

생산방식의 개선이 축산 분야의 성장에 기여한 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achewe et al., 2018).

2020년 기준 에티오피아 농가는 약 7천만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으며, 이 외 닭, 염소 5천만 마리, 양 4천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소, 염소, 양을 중심으로 가축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닭, 노새 등은 다소 감소하거나 증감을 반복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표 2-17〉 주요 가축 사육 수

단위: 마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낙타	1,209,321	1,418,457	1,760,870	1,827,112	1,637,223
소	59,486,667	60,392,019	61,510,258	65,354,090	70,291,776
닭	59,495,000	56,056,000	59,420,000	48,956,000	56,993,000
염소	30,220,226	32,738,385	38,963,879	50,501,672	52,463,535
말	2,158,176	2,007,829	1,930,808	2,111,134	2,148,492
노새	409,877	461,665	370,552	357,603	382,784
돼지	35,364	34,596	35,264	35,851	36,416
양	30,697,942	31,302,257	33,020,392	39,894,394	42,914,865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QCL). 검색일: 2022. 8. 5.

가축을 통해 얻는 부산물의 가구별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치즈, 양/염소고기는 70~80% 이상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은 부산물로는 가죽, 버터, 소고기, 우유 등이다. 반면 꿀과 달걀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비중보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버터, 소고기, 낙타고기, 양털 등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이다.

〈표 2-18〉 가축 부산물의 용도별 비율

다위: %

				한 17 · /0
구분	가구 소비	판매	현물 임금	기타
99	49.33	9.45	0.55	40.67
버터	56.17	36.67	0.58	6.58
치즈	75.16	18.61	0.43	5.80
소고기	52.25	34.19	1.79	11.77
	84.31	4.67	0.50	10.52
 달걀	30.36	46.63	0.26	22.75
 꿀	37.13	58.46	0.49	3.92
왁스	40.10	22.60	0.37	36.93
양털	43.05	30.35	1.15	25.45
가죽(skin)	50.98	22.09	0.39	26.54
가죽(hide)	64.16	15.96	0.28	19.60
낙타고기	47.54	30.17	0.87	21.42

자료: Central Statistical Agency(2021, p.105).

2.4.3. 산림 및 임업 현황

에티오피아의 최저지대는 해발 -125m, 최고지대는 해발 4.620m로 지역별로 표고 차이가 크며, 다양한 국토환경을 가지고 있다. 전 국토의 약 65%는 건조지역 으로 부류되며, 중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토양의 수분기가 없다. 산림은 열대우림 에서 고워지대 숲, 관목림, 덤불지대, 대나무림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 워지대의 숲은 해발 3,000m 이상 위치한 지역으로 수워 기능을 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현재는 고원지 목축업이 성행하여 이에 대 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발 1,500m 내외의 중워지대는 연료용 땔감을 위한 벌채와 농지로 전용되고 있어 산림황폐화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주요 에너지워이 바이오매스인 상황을 고려하면, 신규 에너지워 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에티오피아의 산림황폐화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 저지대는 대체로 토양의 비옥도가 낮거나 강수량이 충분치 않아 덤불지대로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사를 짓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목축업을 하는 주민 들이 주로 저지대를 활용하고 있다(박현, 강호상, 2016, pp.5-7).

우리나라 산림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국토 면적은 약 1억 1천 ha에 달하지만, 그중 산림 면적은 1,250만 ha로 전체 국토의 약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19).

〈표 2-19〉 2015년 산림 면적

단위: 천 ha

총 국토 면적	산림 면적	비율(%)	기타 입목지 면적
110,430	12,499	18.11	40,631

자료: 산림청(2019, p.2).

연도별 산림 면적 또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도에 산림 면적은 1,500만 ha 이상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림 면적이 해마다 줄어 2010년에는 약 1,230만 ha로 감소하였다.

〈표 2-20〉 연도별 산림 면적(1990~2015년)

단위: 천 ha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15,114	13,705	13,000	12,296	12,499

자료: 산림청(2019, p.2).

에티오피아의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산림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MEFCC)이며, '기후극복형 녹색경제' 전략을 바탕으로 목재 연료 사용 감소, 산림 복원사업 등 산림 면적 증가와 탄소배 출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특히 2030년까지 약 1,50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산림과학원(Ethiopian Environment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EEFRI)은 2014년 12월 이후부터 산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triangle 플랜테이 연과 혼농임업, \triangle 산림자원 활용, \triangle 자연생태계 관리, \triangle 산림 보호, \triangle 환경연구,

△ 기후과학, △ 환경오염 및 관리, △ 사회경제·정책·교육 및 젠더 분야의 8개 연구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부는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하며, 이 외에 Mekele, Bahir Dar, Dire Dawa, Hawassa, Jimma 등의 지역에 총 여섯 개의 지역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다(박현, 강호성, 2016, pp.8-9).

3. 농업 가치사슬 현황과 문제점6)

에티오피아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을 통해 시장 지향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업화된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지만, 농업 가치사슬은 여전히 낙후되었다. 이는 생산성만 강조하는 농촌지도 서비스, 낮은 수확률, 생산 및 마케팅 기술 부족, 자본 부족, 종자 혼합(종자의 품질 저하), 시장정보 부족, 중간상인에게 의존한 유통, 농촌의 도로 접근성 문제, 낙후된 저장 방식, 농산물 수요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기인한다.

3.1. 생산단계

농업 생산성의 향상은 에티오피아 농업정책의 주요 전략에 포함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생산 단계에서 농업 투입물(비료, 종자개량, 살충제, 관개 등)을 활용하고 농촌지도 등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선 도로 및 화물 도로 같은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으며, 개량종자와 비료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단계에서의 가치사슬 환경은 열악하다.

⁶⁾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EIAR)에 의뢰한 위탁연구내용을 요약. 발췌함.

3.1.1. 종자

종자개량은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소 농가들의 개량종자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에티오피아는 법적 인증 절차 없 이 종자 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종자 시스템이 우세하다. 비공식 종자 시스템에는 농업인이 저장한 종자와 농업인 간 종자 교환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 와 같은 비공식 종자는 수확 전후의 부적절한 관리, 종자 생산과 품질 유지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 열악한 저장 방식 등으로 인해 종자의 품질이 좋지 않다.

지금까지 33종 이상의 대두 품종이 다양한 농업 생태계를 위해 에티오피아에 출시되었다. 그러나 종자 공급과 농촌지도 활동이 매우 부진하여 농가들이 손쉽게 개량 대두 품종을 얻을 수 없다.

최근에는 소규모 농가들이 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개량종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2005년과 2015년 사이 개량종자를 사용하는 면적이 5%에서 12%로 증가하였다(Bachewe et al., 2018; OECD, 2020).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CSA)에 따르면, 2020~2021년 동안 개량종자 총량은 11만 6천 톤이며, 개량종자의 재배 면적은 약 2.2백만 ha로 추정하고 있다. 옥수수와 밀 작물에 더 많은 양의 개량종자를 사용하고 있다. 총량은 각각 5.2만 톤과 4.7만 톤이며, 면적은 각각 1.5백만 ha와 0.3백만 ha로 추정하고 있다(CSA, 2021).

3.1.2. 비료

에티오피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비료 시장을 통제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농업 투입물의 수입과 유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부터 농업투 입물공급기업(Agricultural Input Supply Enterprise: AISE)에서 독점적으로 비료를 수입하고, 국내 유통은 협동조합 연합(Union)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WIDE, 2014).

대부분 비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에티오피아의 비료 수입량은

1.39백만 톤이며, 전체 비료 사용량(1.92백만 톤)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비료 대부분은 곡물류(1.62 백만 톤)에 사용했다. 비료를 사용하는 전체 농경지면적은 10.1백만 ha로 추산하고 있다(CSA, 2021).

비료의 사용량과 화학 비료의 총량과 면적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료 사용과 관련한 농업기술 교육이 확대되면서 2005년과 2015년 사이 비료를 사용하는 농지 면적은 40%에서 58%로 증가하였다(OECD, 2020).

농가들이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비료공급 제한, 인식 부족, 비용 문제 때문이다. 영세 농가들은 대체로 종자와 비료 등 투입물 공급 시스템과 신용 및 금융서비스에서 배제되었다. 반면, 지를 소유한 농가와 개량종자 같은 신기술을 감당할 충분한 자본과 노동력이 있는 농가에는 농촌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통소규모 농가의 대다수가 현금 소득이 낮고 농촌지도 서비스와 신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양질의 투입물을 제공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EIAR, 2022).

3.1.3. 관개

에티오피아의 관개 면적은 총 18만 ha로 추정하며, 관개용수를 사용하는 농업 인은 약 1.4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작목별 관개 면적을 보면, 옥수수가 약 36,719ha, 수수 11,715ha, 테프 9,325ha로 추정된다(CSA, 2021).

관개 면적이 많은 지역은 농업 생산성이 높다. 반면, 식량 확보가 불안정한 지역은 지선 도로와 다리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도 부족한 편이다(EIAR, 2022).

3.2. 수확 후 관리 단계

3.2.1. 수확 후 손실

대부분 에티오피아 농업인들은 저장 문제와 수확 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 중에 작물을 판매한다(EIAR, 2022). 에티오피아에서 생산하는 모든 곡물 (밀, 테프, 옥수수, 수수, 보리)의 평균 수확 후 손실률은 24%로 추정된다. 밀의 수 확 후 손실률은 27%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고 테프의 손실률은 21%로 다소 낮았다. 병충해로 인한 평균 수확 후 손실 추정치는 27%였다(Hengsdijk & De Boer, 2017).

개도국의 경우 수확 후 손실 문제는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수확 후 손실이 낮을수록 낮은 가격으로 보다 많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수확 후 손실이 감소하면 식량 안보가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식량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수확 후 손실로 인해 낭비되므로 물, 토지, 비료의 오용이라는 중요한 환경 문제와 맞물려 있다(Kummu et al., 2012).

에티오피아 정부는 수확 후 손실을 2020년까지 25%에서 5%로 줄이기 위해 2016년 수확 후 관리 전략(Postharvest Management Strategy: PMS)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4년 아프리카연합 말라보 선언(Malabo Declaration of Africa Union)의 목표인 '2025년까지 수확 후 손실 절반 감소'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목표인 '2030년까지 빈곤 및 기아 종식'과 같은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EIAR, 2022). 그러나에티오피아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확 후 손실은 여전히 목표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3.2.2. 수확 후 관리의 문제점

수확 후 처리 과정과 저장 과정에서 잘못된 도정과 탈곡으로 인한 곡물 파손, 해충으로 인한 품질 저하, 불충분한 건조로 인한 곰팡이 발생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Befikadu, 2018).

에티오피아 농업인들은 대부분 낫, 삽, 괭이, 도끼 등의 재래식 농기구를 사용하므로 수확된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EIAR, 2022). 특히 고리가 부착된 막대기를 사용하여 과일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전통방식은 과일의 미생물 감염과 파손을 유발하여 수확 후 손실의 증대를 초래한다.

또한 포장과 운송과정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원예 작물을 수확한 후 포장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작물을 혼합하여 보관하며, 운송 시 무분별하게 적재함으로써 농산물을 파손시키고 유통기한을 단축시킨다(Banjaw,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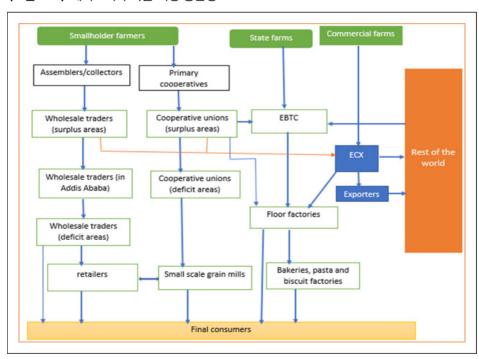
Amentie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목축업의 우유 생산자 대다수(90~92.5 %)가 문맹자였으며, 위생적인 우유 생산 방법에 대한 교육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손에서 부패 및 병원성 박테리아가 발생되어 우유를 포함한 식품의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곡물류(대두)의 경우, 농장에서 저장하는 동안 손실은 약 0.5 %로 추정된다. 농가에서 보관하는 동안 오래되고 손상된 포대 자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류(쥐등) 때문에 부패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도난당하거나 포댓자루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률은 0.2~0.5%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CSA, 2021).

3.3. 농산물 공급망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시장은 적절한 시장정보의 부족, 도로 인프라 낙후, 마케팅 시스템 미비,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시장 개입,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2-3>은 에티오피아 곡물 시장의 공급망을 나타내며, 곡물의 종류와 최종 소비지에 따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테프와 밀과 같은 곡물은 대도시 나 마을에 위치한 제분 공장 등으로 유통되며, 옥수수와 수수는 주로 국가 내 식량 부족 지역으로 유통된다. 한편 에티오피아 상품거래소(Ethiopia Commodity Exchange: ECX)는 콩과 참깨 등 수출 작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담당한다. 대부분 의 작물은 ECX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구매자(가공업체 및 수출업체)에게 유통된 다. ECX의 보관 창고는 보통 농작물이 수집되고 저장되는 생산지역에 위치한다 (EIAR, 2022).



〈그림 2-3〉에티오피아 곡물 시장 공급망

자료: EIAR(2022).

에티오피아 곡물 시장의 공급망에는 생산자, 현지 수집상 및 중개인, 운송업자, 제분업자, 가공업자, 소비자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3.3.1. 공급망 주체

□ 농업인

농업인은 곡물 시장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농업인은 곡물 생산량의 대부분(62%)을 가계소비에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업인은 대체로 유지류(Oilseeds)나 두류(Pulses)와 같은 환금 작물(cash crop)을 선호한다(EIAR, 2022).

□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과 협동조합 연합(Union)

전국의 도(region), 지구(zone), 워레다(woreda) 행정구역의 생산자 협동조합 (Primary Cooperatives)과 협동조합 연합(Union)은 조합원에게 곡물을 현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에 구입하여 보관한 후, 수집한 곡물을 지역의 협동조합이나가공업자, 소비자, 다른 협동조합 등에 판매한다. 특히 협동조합 연합(Union)은 제분 공장, 제분소, 제빵소 등 곡물 가공이나 동물 사료 생산 등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은 조합 가입 여부를 떠나 모든 농업인에게종자 및 비료 등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로메 아다마 협동조합 연합(Lome Adama Farmers Cooperatives Union)은 농업투입물(비료, 개량종자, 화학물), 농산물 판매장 운영, 제분 공장 및 제과점 운영, 축산사료 생산, 농기계(트랙터 등)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비프투 베르가 낙농협동조합 연합(Biftu Berga Dairy Cooperatives Union)은 회원농가교육, 원유 수집, 원유 품질검사, 우유가공공장에 원유 공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중개인

에티오피아 곡물 마케팅 시스템에서 중개인은 여러 시장에서 곡물 가격 및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중재, 지불 송금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인은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 곡물의 단위당 수수료를 받는다. 주로 중앙 시장이 거점이지만 지역 중개인과 같이 일하는 중앙 시장

중개인도 있다. 중개인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마진을 남기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시장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도매상인

도매상에는 크게 지역 도매상과 도시 도매상으로 구분된다. 지역 도매상은 워레다 마을에 거주하며 중개인, 농업인, 현지 및 도시 수집상, 위탁 대리인에게 작물을 구매하고 최종 시장(아디스아바바)과 기타 곡물 부족 지역에 작물을 공급한다. 도시 도매상은 최종 시장에 거주하면서 지역 시장으로 이동하여 중개인, 농업인, 지역 도매상, 도시 수집상에게 작물을 구매한다. 도매상은 때때로 곡물을 보관하다가 대도시의 소매업체나 곡물 부족 지역의 상인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최종시장의 도매상은 지역도매상에게 대량으로 작물을 구입하여 소매업체에 판매한다. 곡물 공급망을 따라 도매상은 곡물 이여 지역에서 곡물 부족 지역으로 곡물을유통시킨다. 새로운 도매상은 자유롭게 곡물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기존 도매상도 곡물 시장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대규모 민간기업의 곡물 거래가 흔하지 않다.

□ 수출업자

에티오피아 농업 수출은 주로 커피, 유지류, 두류 작물 같은 소수의 상품이 주를 이루며,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출업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수출업자는 위탁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충분한 양과 양질의 작물을 수집한다.

3.3.2. 곡물 시장 공급망 문제점

에티오피아 농산물 시장의 문제점은 중개인의 참여가 높고 시장정보가 부족하며 가격 변동이 크고 거래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곡물의 유통 흐름이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아 일부 행위자가 곡물을 비축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규제받지 않는 중개인이 주로 대형 시장 중심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개인은 주요 시장 중심지의 대규모 곡물 구매자와 투자자와 협력하여 암묵적으로 곡물 가격을 결정하며, 농업인과 도소매상은 책정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로는,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①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이 소규모 농업인에게 더 많은 곡물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및 신용 서비스 부족, ② 협동조합 내숙련된 관리자 및 회계 담당자 부재, ③ 생산자 협동조합과 소통하는 지역 지도자의 빈번한 교체, ④ 생산자 협동조합의 열악한 저장 시설 등의 제약으로 인해 협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⁷⁾ 로메 아다마 협동조합 연합(Lome Adama Farmers Cooperatives Union)은 협동조합 내 숙련된 전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제한적인 자체 규정으로 인해 민간 가공업체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프투 베르가 낙농협동조합연합(Biftu Berga Dairy Cooperatives Union)의 경우, 불법 거래자의 개입으로인해 원유 수급 및 품질 관리가 어려우며, 우유 가공에 필요한 재정과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4.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 '10개년(2021~2030년) 개발계획(Ten Years Perspective Development Plan)'

에티오피아 정부는 2020년 제2차 경제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의 종료와 함께 2021~2030년 10개년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발

⁷⁾ 에티오피아 현지 조사. (2022, 8, 21,~28.), 시 Kassave Cheru 현동조합 대표와의 면담내용을 요약.

계획을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소득수준과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계층과 관계 없이 식량, 물, 건강, 교육 등 기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경제, 정치 등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목표, 전략, 우선 부문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반적인 발전 목표는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 복지 향상을 이루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 경제구조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대 전략과 6대 우선 부문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10대 전략과 6대 우선 부문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10대 전략의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우선수위가 높은 6대 부문을 선정하였다.

⟨표 2-21⟩ 에티오피아 10개년 개발계획

6대 목표

- ① 시장경제 구현/민간 참여 확대
- ②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 ③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
- ④ 사회보장 세비스 및 인프라 강화
- ⑤ 공무원 역량 강화
- ⑥ 평화/정의/법치 제도 강화

10대 전략

- ① 질적 경제성장 및 공동 번영
- ② 경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③ 기술역량제고 및 디지털경제 구현
- ④ 지속가능한 개발 재원 확보
- ⑤ 민간 부문 주도 경제성장
- ⑥ 회복력 있는 녹색경제 구현
- ⑦ 경제사회 공공제도 개혁
- ⑧ 성평등 및 사회적 포용
- ⑨ 효율적 사법 및 행정 접근성 강화
- ⑩ 지역경제 통합 및 평화 구축

6대 우선 부문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재 원 확대
- ② 지속가능하고 포괄적 금융 부 문 개발
- ③ 인구배당효과 활용
- ④ 양질의 효율적 인프라 개발
- 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⑥ 평화/정의/포용적 제도 구축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14).

에티오피아의 10개년 개발계획은 거시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금융, 높은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은 2020/21년부터 2029/30년까지 연평균 1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0/21년 19%에 달하는 빈곤율은 2029/30년까지 7%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2030 계획은 생산요소를 저생산 분야에서 고생산 분야로 재배치하여 농업 보다는 산업(제조업) 주도로의 경제구조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으로 경쟁력 향상, 시장 기회 확대, 수출상품의 다변화 등을 촉진시키고자 하 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민간 부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 산업,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연평균 5.9%, 13%, 10.6% 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p.27)

⟨표 2-22⟩ 산업별 평균 성장률 현황 및 목표

но	평균 성장률(%)					
부문	'15/16~'20/21년	'20/21~'24/25년	'25/26~'29/30년	'20/21~'29/30년		
농업	4.1	5.5	6.2	5.9		
- 작물생산	4.8	4.6	4.6	4.6		
- 축산물생산	2.5	8.5	10.1	9.3		
산업	15.2	11.4	14.6	13		
- 제조업	13.0	18.4	22.9	20.6		
- 건설업	17.3	8.5	9.2	8.9		
서비스업	8.2	10.4	10.7	10.6		
- 도소매업	8.9	11.3	11.8	11.6		
- 교통 & 통신	11.5	14.6	14.8	14.7		
- 금융중개	12.5	9.9	7.8	8.8		
GDP	8.2	9.2	10.9	10.0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p.2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연평균 10%의 성장률 달성에 필요한 총자본형성은 GDP의 36.9%로 추산되며, 전체 지출의 58.9%는 민간 지출에서 이루어지고, 민간투자 비율은 23.9%로 예상하여 민간 부문이 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투자 중 63.1%는 정부 자본예산에서 충당하고 36.9%는 공공기업에서 조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GDP에서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9/30년 기준 19.4%에 이를 것이며, 전체 수출의 경우은 GDP의 12.9%가량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p.28).

〈표 2-23〉 GDP 내 부문별 지출 비율

단위: %

		 평			£ 11. 70
부문	'15/16~'20/21년	'20/21~'24/25년		'20/21~'29/30년	'29/30년
총소비지출	79.1	72.0	70.0	71.0	69.3
- 민간지출	64.8	61.1	56.8	58.9	55.2
- 공공지출	9.5	10.9	13.2	12.1	14.0
국내총저축	20.9	28.0	30.0	29.0	30.7
총자본형성	30.8	36.8	37.0	36.9	37.3
민간투자	22.1	22.4	25.4	23.9	26.9
정부투자	8.2	14.4	11.6	13.0	10.3
정부 자본예산	4.2	7.7	8.6	8.2	8.4
공공기업	4.0	6.7	3.0	4.8	1.9
수출(서비스 포함)	7.1	11.9	12.9	12.4	12.9
수입(서비스 포함)	16.9	20.7	19.9	20.3	19.4
재정수지	-9.9	-8.9	-7.0	-7.9	-6.5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p.2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구조의 전환을 위해 GDP에서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20년 32.6%에서 2029/30년 기준 22%까지 감소하며, 반면 산업 비율은 29%에서 35.9%로, 서비스업 비율은 39.5%에서 42.1%로 높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문 내에서도 제조업 주도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바, 그 비율 또한 6.9%에서 17.2%로 약 10%p 이상 증가할 것이다(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p.29).

〈표 2-24〉 부문별 GDP 비율

단위: %

부문	2019/20년	2024/25년	2029/30년
농업	32.6	27.2	22.0
- 작물생산	21.3	16.6	12.4
- 축산물생산	8.5	8.5	8.2
산업	29.0	30.4	35.9
- 제조업	6.9	10.3	17.2
- 건설업	21.1	19.3	17.9
서비스업	39.5	42.4	42.1
- 도소매업	14.3	16.2	16.9
- 교통 & 통신	5.3	6.7	8.0
- 금융중개	3.3	3.3	2.9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p.3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년간 에티오피아 GDP 성장률에서 농업 부문이 기여하는 비율은 평균 1.6%p, 산업 부문과 서비스 부문은 각각 약 4%p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농업 부 문의 노동력 참여율 또한 2012/13년 72.7%에서 2029/30년 42%로 감소를 내다보 고 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9/30년까지 53.9%로 2019/20 년에 비해 약 15%p 증가하고자 하지만 농업 부문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4%로 2019/20년 대비 약 40%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pp.30-31).

〈표 2-25〉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

H D	평균					
부문	'15/16~'19/20년	'20/21~'24/25년	'25/26~'29/30년	'20/21~'29/30년		
농업	1.5	1.7	1.6	1.6		
- 작물생산	1.1	0.9	0.7	0.8		
- 축산물생산	0.2	0.7	0.9	0.8		
산업	3.4	3.2	4.8	4.0		
- 제조업	0.8	1.5	2.9	2.2		
- 건설업	2.6	1.7	1.7	1.7		
서비스업	3.3	4.3	4.6	4.4		
- 도소매업	1.3	1.7	2.0	1.9		
- 교통 & 통신	0.6	0.9	1.1	1.0		
- - 금융중개	0.4	0.3	0.2	0.3		

자료: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2021, p.3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10개년 개발계획에는 농업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개시설의 확대를 통한 천수농업의 의존도 감소, 농업 기계화 서비스 확대, 생산성이 높은 소농에 대한 토지 지원, 축산업 사료 개발과 동물건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적 농업 등이 주요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연간 총 작물 생산량을 약 6천만 톤에서 1억 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식량작물, 관개를 통한 작물 등의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며, 중·대규모 농가의 농작물 생산 비율을 전체 작물 생산량의 16%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개선된 종자 및 천연비료 등의 제공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도 달성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10개년 개발계획은 ha당 토양 오염 비율 감소,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협회 설립, 원예업 활성화, 가축 및 수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는 중대형 관개시설 설치는 이번 10개년 수자원 개발 계획 내 중점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개선된 관개 기술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관개시설을 개발하여시간 및 비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며, 물 사용자 협회 설립으로 농민들의 유지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중대형 관개시설의 건설을 49만 ha에서 120만 ha로 확대하고, 현대 관개 기술 적용 비율을 현행 2%에서 20%까지 증가시킨다. 또한 기존 20개 관개계획에서 용수 이용효율은 30%에 불과하였으나 이를 50%로 높이고, 토지 이용효율 또한 33%에서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관개시설에 대한지원으로 총 10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 '제5차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Productive Safety Net Program: PSNP V)'

에티오피아 정부는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식량 안보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제5차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설계하였다. 제5차 생산적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 지역의 절대적 빈곤 감소를 목표로 극빈층과 취약계층의 탄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내 8가지 핵심 분야로는 △ 책임감 있고 투명한 거버넌스, △ 가뭄이 심한 지역의 극심한 빈곤(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성), △ 시기적절하고 예측 가능하며 적절한 조치(전자결제 자동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임금률 조정 등), △ 충격(특히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조기 경보 시스템, 가뭄 대응 계획 등), △ 생산성 향상, △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 농업 또는 비농업의 생계 지원(생계보조금 확대, 청년 고용 등), △ 여성, 영양, 사회개발을 선정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2020).

□ 제2차 '국가 영양 프로그램(National Nutrition Program: NNP II, 2016~2020)'

제1차 국가 영양 프로그램(NNP I, 2009~2015)은 영양실조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영양 분야의 국가적 개입을 통해 최적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 장수 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청소년 영양 및 생활습관 관련 프로그램이 구현되거나 모니터링되지 않은 점,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구조, 식품강화(Food Fortification)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은 1차 프로그램에서 다소 부진했던 요소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5년 1차 영양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에티오피아 정부는 제2차 국가 영양 프로그램(NNP II)을 실시하였다. 2차 프로그램은 어린이,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구의 영양실조를 줄이기 위해 최적의 모유 수유, 미량영양소 결핍 완화 및 예방, 구충 관리, 식품 강화 및 급성 영양실조 관리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여성 및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영양 프로그램의 전략 목표 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6~10세 어린이의 영양 증진(전략 목표 2, 전략 목표 4)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천연자원부는 일 년 내내과일, 채소, 영양소가 풍부한 곡물의 가용성, 접근성 및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 밖에도 영양에 민감한(Nutrition-sensitive) 농업 및 축산부문의 역량 강화, 수확 후 처리를 위한 기술 강화, 영양에 민감한 농업(Nutirion-sensitive Agriculture) 지식 향상, 산림 면적의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영양 부문을 지원하고자 계획하였다(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16).

□ '영양에 민감한 농업 전략(Nutrition Sensitive Agriculture Strategy (2017~2021))'

농업은 인구의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며, 농가의 농업생산성과 영양 상태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프로그램이 주로 생산량 및 생산성 등 고부가가치 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 안전 기준, 여성의 농업 참여율과 혜택, 축산물의 질보다는 생산 두수 확대에 집중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의 농업 시스템이 영양 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

았음을 인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영양에 민감한 농업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 러한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영양 부족의 종식, 가구의 식량안보 보장, 식품과 영 양 정책 개발 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해당 전략의 전반적인 목표는 국가 영양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며, 음식의 양과 질을 높여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인구에 다양하고 영양가 있 으며, 안전한 음식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Ministr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MoANR) &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MoLF), 2016).

⟨표 2-26⟩ 영양에 민감한 농업 전략의 목표. 결과 및 이니셔티브

전략 목표	결과	이니셔티브
1. 농업정책, 전략, 프로 그램과 영양 간의 통합	1.1. 농업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과 영 양 부문 간의 연계	1.1.1. 정책, 전략, 프로그램 및 투자 내 영양 부문이 주요 내용에 포함
	2.1. 관련 부처의 식품 및 영양 부문 강화	2.1.1. 국가, 지역 등 모든 수준에서 식품 및 영양 부문 구조 수립 및 강화
2. 제도적, 조직적, 인적	2.2. 영양에 민감한 농업에 대한 관계 자의 역량 강화	2.2.1. 영양에 민감한 농업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
역량 강화	2.3. 학습기관 및 TVET 교육과정	2.3.1. 영양에 민감한 농업 부문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
	개정	2.3.2. 교육기관의 과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 도록 교육 부문 지원
		3.1.1.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 증가
	3.1. 다양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 생산	3.1.2. 주요 작물의 생산량 증가
		3.1.3. 동물성 식품 생산랑 증가
		3.1.4. 수확 후 손실 감소 및 식품 안전 개선
3. 다양하고 안전하며,	증가	3.1.5. 농업훈련기관의 역량 강화
영양가 높은 식품의		3.1.6. 농업연구기관의 영양에 민감한 농업 지원
연종 접근성 및 소비 가능		3.1.7. 식량 가용성 향상을 위한 천연자원기반 개선
		3.1.8. 협동조합 및 민간 부문 참여
	3.2. 안전하고 다양하며, 영양가 높은 식품 소비 증가	3.2.1. 증거기반 및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여 식품 소비 증가(특히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높은 관심 필요)
4.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 역사회 및 가구의 탄	4.1. 식량 불안정, 회복력 강화 및 영	4.1.1. 자원 이전 프로그램에 영양에 민감한 농업을 포함
역성 향상	양에 민감한 농업을 통합	4.1.2. 가정 및 지역사회의 대응 메커니즘에 영양 부문 포함

자료: Ministr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MoANR) &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MoLF)(2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가 산림 분야 개발 프로그램(National Forest Sector Development Program, 2018~2027)'

국가 산림 분야 개발 프로그램은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로 에티오피아 환경산 림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MEFCC)가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산림 분야의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장 기적 목표로는 \triangle 2020년까지 산림 면적을 20%로 증대, \triangle 에티오피아 2차 국가 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I)이 종료될 때까지 GDP 내 산림 분 야의 기여도를 4%에서 8%까지 증가, \triangle 향후 10년 내 목재 제품 자급률 달성을 제 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MEFCC), 2018, pp.1-10).

- 환경 및 제도 개발 지원: 기존의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제도적, 인적, 기술적 역량을 개발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 생산 및 가치사슬: 에티오피아는 2040년까지 산업 목재 제품에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 부문의 산업화를 강화하여 GDP 내 산림 부문의 기여도를 높인다.
- 산림환경기능: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5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킨다.
- 산림과 농촌 생계: 식량 생산, 지속가능한 목재 공급의 강화를 위한 토양의 비옥성을 보장하고, 산림의 가치를 높여 농촌의 빈곤 감소,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기여한다.
- 도시녹화와 도시 숲: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삶의 질과 대기질을 포함한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장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1.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현황

1.1. 개발협력 실적

2016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에 지원한 ODA 총규모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6년 약 1.5억 달러를 시작으로 다음 해에 3천만 달러까지 대폭 하락한 이후 2018년에는 2.8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하락하였다.

전체 ODA 중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0.6%에서 2018년 33.4%까지 급속히 상승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4%대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에 비율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농업 용수자원 분야의 지원 규모가 대폭 상승한 데 기인한다.

〈표 3-1〉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2016~2020년)

단위: 백만 달러

	분야(목적코드/내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0.190	0.429	_	_	1.532	
	31120: 농업 개발	0.619	0.831	2.581	3.030	0.964	
	31140: 농업용수자원	_	0.997	91.912	0.499	1.563	
	31150: 농업 투입재	_	-	-	-	0.186	
	31161: 식량생산	_	0.036	0.045	0.074	0.185	
농업	31163: 축산	_	-	0.009	1.216	1.074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0.026	-	0.064	0.162	_	
	31181: 농업 관련 교육/훈련	-	-	-	1.262	0.667	
	31182: 농업 연구	0.044	-	0.064	-	-	
	31192: 병충해 구제	0.027	0.026	-	-	_	
	31194: 농업협동조합	_	-	-	0.074	_	
다분야	43040: 농촌개발	0.509	4.308	0.052	0.135	0.410	
	농림업 분야 총액	0.906	2.320	94.676	6.318	6.172	
	체 ODA 중 농림업 분야 비율	0.6%	7.4%	33.4%	2.7%	4.5%	
	ODA 총액	153.764	31.199	283.847	236.522	136.029	

주: commitments, constant prices 기준.

2022년, 우리나라가 에티오피아 농업 및 지역개발 분야에 수행한 신규 또는 계속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국제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가 해당 분야를 주로 지원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부처별 세부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2, pp.238-239).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6. 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3-2〉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농업 및 지역개발 ODA 현황

부처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억 원)	'22년 예산 (억 원)	신규/ 계속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구분 (유·무상)
기획 재정부	아프리카차 관(융자 -ODA)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프로젝트	1,052.31	46.12	계속	2020	2025	양자 유상
기획 재정부	아프리카차 관(융자 -ODA)	에티오피아 통합농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구축사업	프로젝트	1,119.48	5.04	신규	2022	2027	양자 유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 력(ODA)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	프로젝트	36.26	0.00	계속	2016	2022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 력(ODA)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프로젝트	31.26	0.00	계속	2017	2022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 력(ODA)	에티오피아 곡물 가공식품 제조 기술 전수사업	프로젝트	16.84	0.00	계속	2017	2022	양자 무상
농림축산 식품부	국제농업협 력(ODA)	에티오피아 낙농기술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	프로젝트	31.68	2.00	계속	2018	2022	양자 무상
농촌 진흥청	해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에티오피아 해외농업기술 개발사업(KOPIA) 3차 사업	개발 컨설팅	36.86	6.76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산림청	국제산림 협력 공적 개발원조 (ODA)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혼농임업 사업	프로젝트	16.21	9.92	신규	2022	2023	다자성양 자(무상)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협 력개발지원	에티오피아 농기계 R&D 센터 조성	프로젝트	178.6	24.60	계속	2021	2026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관개 및 농촌개발 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196.13	0.00	계속	2013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 (GGGI)	VMFHWP RXM	145.20	27.10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새마을운동 사업	프로젝트	50.44	10.41	계속	2017	2022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기능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 가치사슬 강화	프로젝트	121	23.77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에티오피아 가죽 및 가죽제품 경쟁력 강화 사업	프로젝트	113	0.50	신규	2022	2025	양자 무상
한국국제 협력단 (KOICA)	에티오피아 (ODA)	경제적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	프로젝트	113	0.50	신규	2022	2025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ODA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아프리카 국가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하여 총 7개 국가이다. 2021년과 2022년 기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ODA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기준 양자 무상과 양자 유상 지원 금액을 합한 총 ODA 규모는 1,200억 원에 달한다.

〈표 3-3〉 2022년도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별 ODA 규모(확정액 기준)

단위: 억 원

제3기 중점협력국	2	2021년 확정역	Į	2022년 확정액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에티오피아	268.8	794.3	1,063.1	360.5	840.2	1,200.8		
우간다	173.2	_	173.2	230.5	_	230.5		
세네갈	161.8	109.7	271.5	168.4	201.9	370.2		
르완다	153.0	106.5	259.5	165.6	151.6	317.2		
탄자니아	125.7	256.1	381.8	236.9	412.4	649.3		
가나	98.1	616.6	709.6	128.3	726.7	855.0		
이집트	31.61	499.34	530.95	56.5	219.2	275.7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p.200)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2.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협력전략

1.2.1.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5) 국가에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 빈곤감소전략 I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I: GTP I)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및 환경개선,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안보강화, 인적자원 향상을 통한 국가성장 기반 마련,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의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후 에티오피아는 중저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빈곤감소전략II'를 발표하였다. 해당 전략 내 인프라, 에너지, 공공서비스 개혁 등의 성장계획이 포함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가전략을 고려하여 對에티오피아 제2차 국가협력전략(2016~2020)을 마련하였다(관계

부처 합동, 2016). 우리나라가 선정한 중점 분야는 수자원 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교통 및 에너지 분야이며, 해당 분야별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4〉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제2차 국가협력전략 방향

한국의 지원 목표		 보건 시스템 강화, 보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개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기반 구축 산업기반 인프라(교통·에너지) 지원 확대 및 인적 역량 강화 과학·기술·혁신 및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 확대 				
중 점 분	물관리 및 보건위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모자보건, 가족계획, 여성 청소년 성교육 등) 제공 보건 인력 역량 강화 전염병 관리기능 강화 식수 위생환경 개선 				
· 야 별	지역개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 소농의 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				
지 원	교통· 에너지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전기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에너지 분야 인적 역량 강화 				
방 향	교육	학교 밖 소녀·여성 교육 지원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2, p.13).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우리나라는 에티오피아에 총 1,200.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중점 분야에 대한 지원은 1,051.21억 원으로 전체 사업지원비의 87.5%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에너지 분야 지원이 656.54억 원으로 4개 중점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물관리 및 보건위생 170.14억 원, 지역개발 129.62억 원, 교육 94.9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2차 중점협력전략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ODA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1월 ODA 중점협력국을 재선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1). 아프리카 대륙 내 제3차 중점협력국에는 모잠비크가 제외되고 이집트가 추가되었으며, 에티오피아는 제3차 중점협력국에 재선정되었다. 이로써 에티오피아, 가나, 우간다,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이집트, 총 7개 국가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으로 분류되었다.

1.2.2. 한국국제협력단(KOICA) 對아프리카지역 협력전략

KOICA는 제1차 협력전략(2012~2015) 수립 이후 변화된 아프리카 지역 정세를 반영하고, 경영전략-아프리카 지역전략-국가별 개발계획(CP)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2020년 對아프리카지역 협력전략을 마련하였다. 해당 전략은 아프리카를 권역별(동남·중서·북)로 나눠 분석하고 중점 지원 분야를 도출하였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보건 서비스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공통의 목표로 하며, 동남아프리카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역량강화", 중서아프리카는 "공동 번영을 위한 포용적 경제개발 기여", 북아프리카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굿거 버넌스 구축"을 권역별 핵심가치로 선정하였다(한국국제협력단, 2020, p.3). 에티오피아가 속한 동남아프리카의 중점 전략 및 목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동남아프리카 중점 전략 및 목표·방향

중점 전략	목표 및 방향
포용적 교육·보건 서비스 강화(People)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양질의 필수모자 청소년 보건 서비스 제공
모두를 위한 기술환경 에너지 향상(Planet)	•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공동 번영을 위한 기간 산업 지원(Prosperity)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20, p.23).

교육 및 보건 서비스 강화전략의 주요 내용은 기술교육 또는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인적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국별 교육 과정 및 직업정보 등에 대한 지식공유 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모자보건 인력을 양성하고 가족계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환경·에너지 전략은 수원국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관련 문제를 우선으로 하여 조기 경보 시스템과 같은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간 산업 지원의 주요 목표는 농촌개발을 골자로 하며 주민수요에 기반한 마을 개발사업, 농촌지도자양성 교육, 주민 역량 강화, 보상체계를 통한 주민의 사업참여 의욕 고취, 지속가능한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KOICA는 초국가적 성과확산을 위해 청년인재 육성프로그램과 여성 및 소외계층 대상 삶의 질 개선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에티오피아는 위두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속해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20, p.5, p.24).

1.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에티오피아 진출전략

KOTRA는 2022년 에티오피아 진출전략을 통해 동아프리카의 무역, 투자, 개발 협력 등 다목적 전략 중심지로서 에티오피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개발협력과 관련된 세부 진출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 한-에티오피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티그라이 내전 전후 복구사업	에티오피아 정부의 초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참여 - 티그라이는 북부 경제 중심지로서 전후 복구사업 유망
제조업 육성지원	수출주도형, 수입대체형 제조업 투자 진출 - 투자 인센티브와 현지 원부자재 활용 필요
농업 경쟁력 강화지원	농축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에티오피아의 수출 확대 농축산업 육성과 생산 확대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 개발 및 참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1, p.3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리트레아의 항만을 이용하여 고비용 교역구조를 탈피하고 지하자원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항만,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참여할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 조달형 제조업 모델을 구축하여 한국기업 전용단지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농축산업 분야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커피, 참깨 등 일부 농산물에 의존하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KOTRA는 유무상 협력을 통해 종자개량, 유통관리 시스템, 농산물 저장센터 구축, 스마트팜 등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여 에티오피아의 수출품목 다변화와 수출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p.35).

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현황

2.1. 개발협력 실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이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對에티오피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ODA에 지원한 금액은 17억 55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 중 농업 분야에 15억 959만 달러, 임업 분야에 3,362만 달러, 농촌개발 분야에는 1억 6,23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에티오피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독일, 네덜란드,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가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임업과 농촌개발 분야 지원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주요 공여국 對에티오피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지원 규모(2015~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노리어 미 노초개바	누어		보기, 장시길 기단 노 국기 바
국가	농림업 및 농촌개발	농업	임업	농촌개발
미국	337.68	337.68	0	0
독일	248.81	200.61	9.84	38.36
네덜란드	242.63	234.63	0	8.00
한국	119.52	113.06	0	6.46
프랑스	100.61	94.91	0	5.70
캐나다	95.31	93.81	0.09	1.41
영국	91.47	73.65	0	17.82
노르웨이	91.11	45.87	0.83	44.41
폴란드	84.03	84.00	0.03	0
이탈리아	65.49	50.85	0.08	14.56
덴마크	61.86	54.66	7.20	0
아일랜드	28.29	22.22	0	6.07
일본	28.15	19.25	8.07	0.84
스위스	22.54	22.30	0.08	0.16
핀란드	22.49	12.62	0	9.86
스페인	19.05	15.59	0.79	2.67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CRS. 검색일: 2022. 7. 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을 포함한 다자기관과 DAC 회원국의 농림업 부문별 지원액을 살펴보면,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와 농업개발 분야의 금액이 꾸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부터는 축산과 축산서비스 분야의 지원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업 분야에 비해 산림 분야의 전체 지원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2020년 산림개발 지원액은 2,453만 달러로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개발 분야는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며 지원액의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DAC 회원국 및 다자기관의 對에티오피아 농림업 및 농촌개발 부문 지원액(2015~2020년)

단위: 백만 달러, 총지출 기준

년개· 그년 문역, 0시골 / 1·							
분야(목적코드/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업(총계)	729.62	352.07	455.65	434.76	411.80	525.61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79.26	30.52	24.64	34.10	84.85	115.99
	31120: 농업개발	277.57	147.02	124.86	178.50	120.58	98.40
	31130: 농업용지	177.35	24.08	37.31	57.46	35.17	30.86
	31140: 농업용수	96.70	92.01	4.42	126.13	1.50	21.80
	31150: 농업 투입재	0.25	0.33	0.26	4.27	10.93	1.15
	31161: 식량생산	13.96	3.60	3.64	2.71	8.33	19.04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13	0.01	_	0.25	0.01	0.03
	31163: 축산	3.95	22.19	187.86	4.72	91.24	170.75
농업	31164: 농지개혁	1.04	-	_	0.00	0.37	_
	31165: 농업 대체작물	_	0.06	1.53	0.01	0.03	0.02
	31166: 비정규 농업훈련	57.98	0.69	37.93	1.26	1.31	6.00
	31181: 농업관련 교육/훈련	7.51	0.06	1.76	1.81	2.07	2.68
	31182: 농업 연구	11.86	1.83	6.72	9.52	5.67	3.96
	31191: 농업 서비스	11.42	24.95	0.10	5.01	1.48	7.62
	31192: 병충해 구제	0.14	2.54	0.03	1.53	0.01	0.63
	31193: 농업금융 서비스	9.10	0.24	24.10	0.30	18.56	0.24
	31194: 농업협동조합	41.40	1.96	0.42	7.17	0.76	9.26
	31195: 축산서비스	_	-	0.09	_	28.93	37.19
	산림(총계)	2.46	6.79	5.86	17.73	2.30	25.05
	31210: 산림정책 및 행정관리	0.98	0.77	2.38	14.25	1.39	0.47
임업	31220: 산림개발	1.34	6.02	3.43	2.40	0.90	24.53
20	31261: 장작/숯	-	-	0.05	-	0.01	_
	31281: 산림교육/훈련	_	-	_	0.83	-	_
	31282: 산림연구	0.14	-	_	0.24	-	0.05
다분야	농촌개발	106.49	14.78	18.59	88.14	360.49	31.72

자료: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CRS. 검색일: 2022. 7. 1.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2. 개발협력 전략

2.2.1.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상품가격과 통화가치의 하락,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의 현 상황은 물가 상승과 농촌지역의 실업률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의 한계로 <표 3-9>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표 3-9⟩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의 문제점

취약한 가치사슬	■ R&D의 부족 ■ 투입재 및 기계화 활용력 부족 ■ 농업 지식(기술) 지도 및 보급 부족	 열악한 수확 후 처리 및 운송 부가가치 창출 역량 부족 시장연계 및 무역 회랑 부족
인프라 부족	■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기타 인프라 부분 ■ 소농의 고령화, 상업 및 농산업에 관한 기	==
제한된 금융 접근성	■ 민간 부문 투자를 제한하는 실질적 위험 ■ 낮은 거래 규모, 신용 데이터 부재, 농업 ■ 농업분야의 낮은 시장 매력도	요소 대출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높은 서비스 비용
취약한 농업 비즈니스 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무역을 제한하는 비효율적인 농업 부문 규제 기업환경과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비우 	
포용, 지속가능성, 영양적 제한	 여성과 청소년층을 위한 포용성 부족 기후 탄력적 대응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높은 영양성분을 가진 상품의 경제성과 경제성과 경제성과 경제성과 경제성과 경제성과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장상품의	

자료: African Development Bank(2016, p.1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Feed Africa(2016~2025)'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0월 아프리카개발 은행은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Commission),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세네갈 정부와 'Feed Africa' 전략에 대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농업혁신을 위해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전략은 2003년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와 2014년 적도 기니의 수도 말라보에서 선언한 아프리카 포괄적 농업 개발 프로그램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CAADP)과 일맥상통한 공약을 다루고 있다(AfDB, 2016). Feed Africa의 농업혁신을 위한 촉매제 (Enabler)로 다음의 7가지를 요하고 있다.

〈표 3-10〉 'Feed Africa'의 7가지 촉매제

생산성 증대	농업 기술 배포 농업 생산요소 금융과 시스템 개발 농업 기계화
부가가치 증대	수확 후 손실 방지 농업 가공 구역, 클러스터, 경제 회랑
하드 & 소프트 인프라 구축의 투자 증대	인프라 개발 및 조정 농민 전자등록
농업금융 확대	농업 분야 민간투자 및 상업은행 대출 중소기업 자금 및 역량 강화
영농 환경 개선	• 정책 개혁: 토지임대, 농업생산요소 보조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인센티브, 금융 부문 심화, 지역 간 통합 및 무역
포용성, 지속가능성, 영양공급 개선	기후 회복력 기금과 기후스마트 농업 여성 소유의 농업 및 영농 기업 영농 부문의 청년 고용 확대 식량 안보와 영양실조 방지(유아 및 아동의 영양 보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영향프로그램, 주요 식품에 대한 바우처 또는 보조금, 학교 급식 프로그램, 정부의 영양 개입 등)
이해관계자 협업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요 파트너와의 파트너십

자료: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대표사무소(2016, p.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참고 1. 아프리카 포괄적 농업개발프로그램(CAADP)의 목적

- 1. 농업 부문의 투자 금융을 재강화한다.
- (a) 10% 공공 지출 목표를 유지한다.
- (b) 아프리카투자은행(African Investment Bank)을 운영한다.
- 2. 2025년까지 기아를 종식한다.
- (a) 생산성을 최소 두 배 증가시킨다(농업생산요소, 관개, 기계화에 집중).
- (b) 수확 후 손실을 최소 절반 감소시킨다.
- (c) 영양공급: 저체중과 발육 저하를 각각 5%와 10%로 감소시킨다.
- 3. 포용적인 농업 성장과 변혁을 통해 2025년까지 빈곤을 절반으로 줄인다.
- (a) 농업 GDP 연간 부문별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유지한다.
- (b) 소규모 자작농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5가지 이상의 우선순위 농산물 가치사슬에 대한 포용적 공 공-민간 파트너십을 수립/강화한다.
- (c) 농업 가치사슬에서 청년의 30%가 고용될 수 있도록 한다.
- (d) 선호도 높은 유급 영농사업에 여성과 청년을 우선 투입하고 참여시킨다.

- 4.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아프리카 역내 무역을 장려한다.
- (a) 농산물 및 서비스 부문의 아프리카 역내 무역을 세 배로 증가시킨다.
- (b) 대륙 자유무역지대 조성 및 대륙 역외공통관세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이행한다.
- 5. 기후 변동 및 기타 기후 충격에 대응하는 생계 및 생산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여, 2025년까지 30% 이상의 농장 및 목축 가정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갖도록 보장한다.
- (a) 농촌 노동자, 기타 사회 취약계층 및 취약한 생태계를 위한 사회보장을 포함한 복원력 향상 이니 서티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b) 정책, 전략 및 투자 계획에 회복탄력성과 위험관리 항목을 포함시킨다.
- 6.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상호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 (a) CAADP 성과 평가시스템을 통해 격년으로 농업 프로세스 점검을 실시해 나온 결과를 공유한다.

자료: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대표사무소(2016, p.10).

2.2.2.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SAID의 에티오피아 국가 계획은 식량 안보와 영양 프로그램을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식량안보전략(Global Food Security Strategy)에 의해 짜인 국가 계획은 에티오피아의 식량 불안, 영양실조, 빈곤을 해결하고자 한다. 세계식량안보전략의 목표는 빈곤, 기아, 영양실조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을목표로 한다. 해당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되었으며, 제시된 세 가지목적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림 3-1〉 USAID 에티오피아 국가 계획

	목표: 지속적인 빈곤, 기아, 영양불균형 감소								_]
목적 1.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				목적 2. 인간과 시스템 간의 기후 탄력성 강화			목적 3.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인구 (특히 여성과 아동)		
환경 고리	1. 경을 려한 니스	1.2.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대 및 다양성					3.1. 영양가 있고 안전한 식품 소비 증대	3.2. 위생적인 거주 및 지역사회 환경	
시장 ¹ 및 서	3. 접근성 네니스 ·대	1.4. 고용 증대,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증대		· 효과적인 가바면스, 정책 및 제도 ·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도시화			3.3. 건강, 영양 서비스 강화		
		7	•	2.1. 위험감소, 위험각소, 완화 및 관리 충격회복성 항상			2		-
				2.3. 향상된 천연자원 관리					

자료: USAID(2019, p.13).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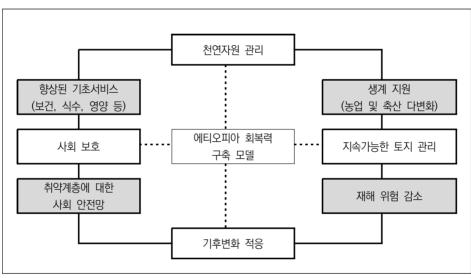
목적 1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주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작물 및 가축 생산, 농작물 및 가축의 다양화, 사업환경 개선, 청년을 위한 고용 및 창업 기회를 포함한 대체 생계 수단 확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의 고용 소득을 증가시키고,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목적 2는 인간과 시스템 간의 기후 탄력성 강화를 이루고자 한다. 천연자원관리를 개선하고 외부 충격과 스트레스 완화, 외부 충격의 관리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 강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목적 3은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게 하고자 하며, 영양을 고려한 농업, 양질의 건강 및 영양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개인, 가정, 지역사회 수 준에 맞는 영양의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2.2.3. 유럽연합(EU)

유럽연합의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RESilience building program in EThiopia: RESET)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 공동체 인도적 지원 사무소(European Community Humanitarian Aid Office: ECHO)와 에티오피아 EU 대표단이 에티오 피아의 구제, 회복, 개발 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이다.



〈그림 3-2〉 EU의 에티오피아 회복력 구축 모델

자료: EU(2014, p.6).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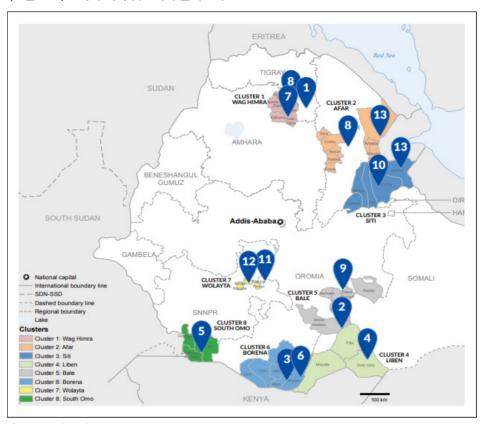
해당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 내 식량 불안정성이 높고 가뭄 발생이 잦은 5개 지역에 걸쳐 8개의 클러스터(Wag Himra, Siti, Afar, Wolayta, Bale, South Omo, Borena, Liben)를 형성하고, 자연재해(가뭄)로 인한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식량 불안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개발조치를 통한 회복탄력적 방법을

적용하고자 마련되었다.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네 가지 목표는 ① 기초서비스 제공(보건, 식수, 영양 등), ② 생계 지원, ③ 사회 안전망, ④ 재해 위험 감소이며, 천연자원 관리,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기후변화 적응 및 사회 보호와 같은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EU, 2014, p.2).

이후 EU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RESET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RESET Plus Innovation Fund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가들이 취약계층 2만 명(수혜계층의 50%는 여성으로 구성)의 생계 및 회복탄력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 한다. 해당 기간동안 EU가 에티오피아에 지원하는 금액은 약 2억 3백만 유로에 달한다. 8개의 클러스터 내에서 총 13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클러스터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계단식 농업, 혼농임업 및 농장 최적화
- 2. 회복탄력성 구축 기회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혁신
- 3. 목축민의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 4. 기술이전, 기후 스마트농업, 사회변화를 통합한 시범모델을 적용한 농업인의 생활개선
- 5. 회복탄력성을 위한 혁신
- 6. 회복탄력성 및 생계유지를 위한 혁신
- 7. 생태계서비스 보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 8. 건조지역의 통합을 통한 가축 기반 시스템의 복원력 향상
- 9. 농촌 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접근성 개선
- 10. 프로소피스(나무 및 관목)의 통합관리
- 11. 에티오피아 바나나를 통한 고지대 지역의 부의 창출
- 12. 전통 작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부가가치 창출 및 마케팅을 통한 농촌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 구축
- 13. 내열성의 가성우역 백신 유통 및 전달모델: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중심 및 제더 포용 백신 활용을 위한 기술 및 사회혁신 시너지

위의 13개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 및 클러스터 위치는 <그림 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ICCO, 2020).



〈그림 3-3〉 5개의 지역 및 8개의 클러스터

자료: ICCO(2020).

2.2.4. 세계은행(World Bank)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은행은 에티오피아에 3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제2차 농업개발프로그램으로 지원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작농의 농업 생산성 강화와 농업의 상업화이다. 세계은행이 정의하는 농업 생산성은 선택된 주요 작물과 축산물의 생산량을 의미하며, 상업화는 소작농들이 선별한 주요

작물과 축산물이 시장에서 생산된 비율을 뜻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와 식습관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통한 영양개 선이라는 상위 목표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농의 공 공 농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농업 연구, 소규모 관개시설, 농업 마케팅 및 가 치사슬 등이 있다.

세계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우선 지역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전략과 연계하여 소농의 공공 농업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업교육, 가축 생산 및 동물 보건, 천연자원 관리, 토양 비옥도 및 농업 기계화를 포함한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농산물 생산과 수확 후 관리 부문에도 제도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수요 주도형 농업 기술(연구)의 향상을 위해 품종 관리, 관개 작물 관리, 토양 관리, 물 보존 기술 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을 포함한 연구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연구센터의 물적 및 인적 역량 강화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소규모 관개시설의 복구 및 개선, 통합된 새로운 관개 시스템 구축, 진입로 설치, 관개시설 물 이용자 조직 설립 또는 강화를 통해 관개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물관리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 투입재 및 생산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소농의 상업화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역 기반 종자 및 사료 생산 그룹에 대한 지원과 투입재 추적 시스템 강화, 마케팅 규정 및 인증제도 강화, (비)공식적 농민 단체에 대한 지원, 신용 및 소액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가치사슬 관계자 간의 연계, 공공 농산물센터 설립, 현대화, 창고 건설 등이 포함되었다(The World Bank, 2015).

3. 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에티오피아 농업은 가치사슬 단계별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열악한 농업 가치사슬은 낮은 수준의 농촌지도 서비스, 낙후된 저장 방식으로 인한 수확 후관리 열악, 생산 및 마케팅 기술 부족, 고품질 종자 산업 부재, 시장정보 부족 등에기인한다.

농약과 비료, 종자 등 농업 투입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열악한 농촌지도 서비스와 농가 보급 문제로 인해 수입된 농업 투입재의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 또한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가 열악하다.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는 전통적인 수확 방법, 저장 기술 미흡 및 보관장소 부족, 선별 및 포장 기술 미흡 등으로 수확 후 손실이 많이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 개발계획(2021~2030)'을 통해 관개시설 확대, 농업 기계화 서비스 확대, 생산성이 높은 소농에 대한 토지 지원, 축산사료 개발과 동물건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적 농업 등 농업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영양프로그램'과 '국가산림 분야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국 민의 영양개선과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제협력단(KOICA)에서 다양한 분야 및 국가를 대상으로 유·무상 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체 ODA 사업내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의 지원 규모는 2018년에 33.4%까지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는 2018년에 농업 용수자원 분야의 지원 규모가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對에티오피아 제1차 국가협력전략(CPS)에는 농가 소득증대 및 식량안보 강화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차 국가협력전략(2016~2020)에는 물관리및 보건위생 분야가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에티오피아의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식량 안보와 영양 프로그램을 위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에티오피아 국가 회복력 구축 프로그램(RESilience building program in EThiopia: RESET)과 RESET Plus Innovation Fund 프로그램(2019~2022년)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은 행(WB)은 소작농의 농업 생산성 강화와 농업의 상업화를 위해 품종 관리, 관개 작물 관리, 토양 관리, 물 보존 기술 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규모 관개시설의 복구 및 개선, 농업 투입재 및 생산물의 접근성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농업 가치사슬 현황과 정부 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 국제사회의 지원프로그램과 전략 등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개발협력을 위한 6개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 ①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
- ②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률 향상
- ③ 축산 생산성 및 안정성(Stability) 향상을 통한 수출 확대
- ④ 주요 식량작물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절
- ⑤ 학교급식, 영양개선 프로그램 등 식품정책을 통한 영양개선
- ⑥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 및 혼농임업

다음 장에서는 개발협력에 필요한 6개 협력과제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현장 수 요와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중점협력 분야 및 세부 추 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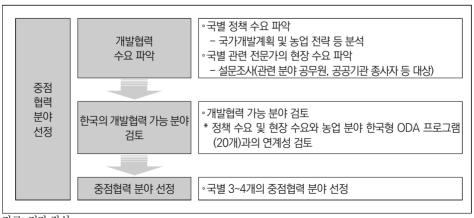
제4장	
중점협력 분야	

중점협력 분야

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본 연구는 <그림 4-1>의 절차를 거쳐 에티오피아와의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앞 장에서 도출된 여섯 개의 개발협력 과제에 대해 에티오피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농업 가치사슬단계별 중요도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 개의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그림 4-1⟩ 중점협력 분야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2. 중점협력 분야 선정

2.1. 가치사슬 중요도 분석 결과

2.1.1. 농업 가치사슬 AHP 분석

에티오피아에 대한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에티오피아의 관련 분야 담당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및 AHP 분석⁸⁾을 하 였다.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가치사슬 단계를 주요 활동(primary activity)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y)으로 구분하였다. 주활동은 투입, 생산, 저장 및 가공, 유통 및 마케팅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는 네 개의 세부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지원활동(support activity) 또한 네 가지 세부활동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2>.

〈그림 4-2〉 AHP 분석을 위한 농업의 가치사슬 모식도



자료: 저자 작성.

⁸⁾ AHP 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은 본 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허장 외, 2018)를 참조할 것.

2.1.2. AHP 분석 결과

에티오피아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총 19명이 응답하였다. 이 중 박사 11명, 석사 7명, 학사 1명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 종사자는 11명, 학계는 5명, 기타 기관 종사는 3명이다. 관련 분야 경력은 10년 이상이 16명이다.

농업 가치사슬의 주요 활동 간, 그리고 주요 활동 단계별 세부 활동 간 상대적 중요도(가중치)와 복합적 가중치를 측정한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가치사슬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Ŧ	1분	중요도	세부 활동	중요도 (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복합가중치)	종합적 중요도 우선순위
			종자	0.31	0.14	1
		0.07	비료	0.34	0.13	2
	투입	0.37	농약	0.13	0.05	
			농기계	0.15	0.05	
			토지 접근성	0.31	0.08	4
	1011	0.04	생산기반	0.22	0.05	
	생산	생산 0.24	영농기술	0.30	0.07	5
			노동력	0.17	0.04	
주 활동			저장시설	0.36	0.07	6
	 저장 및	0.16	농식품 안전성	0.17	0.03	
	가공		품질관리	0.18	0.02	
			가공 및 상품화	0.29	0.04	
			운송 인프라	0.29	0.05	
	유통 및	0.00	시장 접근성	0.28	0.08	3
	마케팅	1 11 7.5	시장정보	0.23	0.05	
			수출구조 및 무역환경	0.20	0.04	
			금융	0.31	-	
지원활동			R&D	0.25	-	
시년필증			농민역량	0.21	-	
			지도사업	0.23	_	

자료: 저자 작성.

주요 활동에서 상위계층(1단계)의 중요도는 투입단계가 0.37로 가장 큰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생산단계의 중요도는 0.24, 유통 및 마케팅 단계는 0.23, 저장 및 가공 단계는 0.16으로 나타났다. 투입단계에서의 세부 활동(하위계층) 중요도는 비료, 종자, 농기계, 농약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단계에서는 토지 접근성, 영농기술, 생산기반, 노동력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활동에서는 금융이 0.31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R&D, 지도사업, 농민역량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상위계층 및 하위계층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중요도를 보면, 종자, 비료, 시장 접근성, 토지 접근성, 영농기술, 저장시설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종자, 비료 등 투입재 확대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영농기술과 저장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한 품질 개선 및 부가가치 제고, 시장 및 토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농가의 소득 확대 등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개발수요 분야의 중요도 및 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관성

앞 장에서 에티오피아 농업 현황, 농업개발정책과 전략, 주요 공여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 전략 등을 바탕으로 도출된 6개의 개발협력 수요 분야에 대해 에티오피아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표 4-2>.

6개의 개발협력 수요 분야 중에서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 률 향상'과 '주요 식량작물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절'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4-2〉 개발협력 과제별 중요도

개발협력 과제	중요도	우선순위
축산 생산성 및 안정성(stability) 향상을 위한 수출 확대	0.16	4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지급률 향상	0.20	2
식품정책(학교급식, 영양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영양개선	0.14	5
주요 식량작물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절	0.16	3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	0.23	1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 및 혼농임업	0.11	6

주: 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1~6순위)를 매기도록 함.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여섯 개의 개발협력 과제와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 중 20개의 농림분야 협력 프로그램(주동주 외, 2012)과의 연계성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를 <표 4-3>에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개발협력 수요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우리나라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은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 템'(161점)과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142점),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138 점), '농업생산기반 구축'(121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작물 생산성 향상, 관개시설 분야에서 에티오피아와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에티오피아의 여섯 개 개발협력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곡물의 생산성 향상' 과제는 우리나라의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56점)',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46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률 향상' 과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50점)',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44점)'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표 4-3⟩ 개발협력 과제와 협력 프로그램의 연계성

단위: 점

					<u> 선위· 심</u>		
한국형 ODA 모델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축산 분야 생산성 강화 를 통한 수 출 확대	농업 가치 사슬 강화를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률 향상	식량정책을 통한 영양 강화	식량자원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요와 공급 조절	곡물 의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산림보호 및 혼농임업	계
1. 관개·배수 시스 템 개발 및 관리	32	50	25	5	46	12	138
2. 농업생산기반 구축	32	27	23	32	33	6	121
3. 농촌종합개발	24	15	23	14	14	35	101
4.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 스템	24	44	28	24	56	9	161
5.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24	12	53	40	35	2	142
6. 농산물 가공	24	30	24	30	10	0	94
7. 농업협동조합	5	11	1	14	8	4	38
8. 친환경농업	5	13	10	5	5	45	78
9. 농지제도 및 관리	5	8	6	9	19	30	72
10. 농업인력 육성	5	8	13	7	1	4	33
11.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예	7	20	7	7	11	0	45
12. 농촌특화사업 개발	7	8	4	10	6	12	40
13. 영농 기계화	18	18	2	11	26	1	58
14. 농산물 유통체 계 구축	18	7	9	34	5	1	56
15. 가축 사육 및 관리	25	5	17	2	4	0	28
16. 가축 질병 관리	25	2	0	3	0	0	5
17. 농식품 안전· 위생 관리	7	3	29	24	1	2	59
18. 농축산물 검역	7	1	8	14	0	1	24
19. 임산자원 개발	3	0	3	0	3	62	68
20. 산림녹화	3	3	0	0	2	59	64
계	285	285	285	285	285	285	1,425

주: 개발협력 과제별로 1순위는 5점, 5순위는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점수임. 자료: 저자 작성.

2.3. 중점협력 분야의 선정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의 농림업 발전과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선정하였다.

- 주요 곡물류 농업 생산성 향상
-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
- 농업역량 강화

선정된 위의 중점협력 분야는 에티오피아의 개발협력 수요에 따라 도출된 6개 개발협력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이며, 중점협력 분야에서 제외 된 3개 분야(축산 분야, 영양개선 분야, 산림 분야)는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이다 <표 4-2>.

이번 연구를 통해 선정된 에티오피아의 중점협력 분야는 곡물류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축산업 및 산림업 분야와 영양개선 분야는 범국가 적인 차원의 접근방식과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중장기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예를 들면, 축산업의 인수공통 가축 질병 관리 등은 에티오피아만의 문제가 아 닌 국제적인 문제이며, 산림조성 또한 사막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국 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접근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식품정책을 통한 영양 개선 문제는 에티오피아 농업발전 측면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국가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농업인들은 축산과 혼농임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지도 개선, 협동조합 활성화, 농업 전문인력 육성 등의 농업역량 강화를 통해 축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혼농임업 활성화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가체계화된다면, 에티오피아 정부의 '국가 영양 프로그램'과 '영양에 민감한 농업전략' 등의 영양개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개발협력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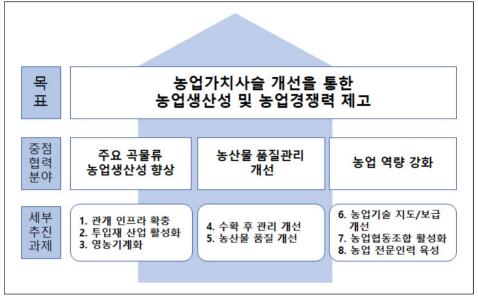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은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과 개발 협력수요와 우리나라의 정책추진 경험을 통해 축적된 비교우위 분야가 서로 일치 되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제4장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중점협력 분야가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지원 된 에티오피아 원조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에티오피아의 농림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유무상 원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기존 사업의 목표 및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하는 차별화된 개발협력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5-1>과 같이, 에티오피아와의 개발협력 추진 목표를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및 농업 경쟁력 제고'로 설정하였으며, 중점협력 분야는 주요 곡물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 농업역량 강화 등 세 개 분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세부 추진과제(8개)는 주로 우리나라의 강점과 비교우위

분야를 보여주는 '한국형 ODA 모델' 중 20개의 농림 분야 협력 프로그램 중에서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에티오피아 농림업 개발협력 중점 분야와 추진과제



자료: 저자 작성.

2. 세부 추진과제

2.1. 주요 곡물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생산성 향상은 에티오피아 농업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의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년)에서는 연간 총 작물 생산량을 약 6천만 톤에서 1억 톤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관개시설 확충, 개량 종자 및 천연비료 공급, 농업기계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

한 에티오피아의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단계에서 관개 인프라 구축, 투입재(종자, 농약, 비료 등) 산업의 활성화, 영농 기계화 등에 대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1.1. 관개 인프라 확충

에티오피아는 관개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계절(건기/우기)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년)에서는 중대형 관개시설의 건설을 49만 ha에서 120만 ha로 확대하고, 현대 관개 기술적용 비율을 현행 2%에서 20%까지 증가시키며, 용수 이용효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제2차 농업개발프로그램(2015~2021년)을 통해 소규모 관개시설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관개시설의 복구 및 개선, 통합된 새로운 관개 시스템 구축, 진입로 설치, 관개 시설물 이용자 조직 설립 또는 강화를 통해 물관리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개시설 개보수사업(2016년 완료)'과 '농업용수 개발사업(2017년 완료)'을 완료하였으며, '에티오피아 하라리주 관개시설 구축사업(2022년 완료 예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티오피아에는 중소규모의 관개시설 지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개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으며, 현대화된 관개 기술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관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의 사업과 연계하고, 우리 나라의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 중대형 관개시설 확충 및 유 지 관리, △ 기존의 관개시설을 활용한 농업용 수로 건설 및 보수, △ 물관리 시스 템 구축, △ 이용자 조직 활성화 등의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1.2. 투입재 산업 활성화

제2장의 에티오피아 농업 가치사슬 현황과 문제점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에 티오피아 소농가들의 개량종자와 비료의 활용 수준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개량종자 및 천연 비료의 개발과 농가 보급 시스템, 농가 지도 서비스 확대, 종자 및 비료 구입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

세계은행(WB)은 2차 농업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반 종자 및 사료 생산 지원, 마케팅 규정 및 인증제도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 투입재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 종자 및 비료/사료 관련 R&D 지원, △ 종자 및 비료/사료 생산 지원, △ 농가 보급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할 수 있으며, 농가의 이용률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종자 및 비료 관련 R&D 지원 사업은 농진청의 에티오피아 KOPIA 센터와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EIAR)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곡물/채소 등의 종자개량 및 종자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범포 구축 및 운영, 실험 기자재 지원, 기술 보급 및 훈련 등의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종자 및 비료 생산지원 사업은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생산시설 구축, 기자 재 지원, 보관 시설 및 운송 수단 지원,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농가 보급 시스템 구축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농가 교육, 종자 및 비료 구입자금 지원(정책자금 지원, 협동조합을 통한 신용대출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업 투입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정에서 한국의 종자 및 비료/사료 관련 민간업체가 현지에 진출하거나, 기술 등을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 하는 것도 중요하다.

2.1.3. 영농 기계화

에티오피아 농가(특히 소규모 농가)의 대부분은 생산과 수확 과정에서 재래식의 농기구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수확 후 손실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농업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 기계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농업의 현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공급 및 활용 문제, 경지와 농로 문제 등 많은 제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농기계 R&D 센터 조성(2021~2026년)' 사업과 연계하여, 에티오피아의 농업협동조합(생산자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을 대상으로 영농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농기계 R&D 센터 또는 새롭게 구축된 농기계 센터를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 또는 협동조합 연합(Union) 단위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기계 운용 및 부품 수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로 농업협동조합은 회원 농가(또는 회원 조합)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작업 대행, 농기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농업협동조합이 에티오피아 영농 기계화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특히 협동조합 연합)은 영농 기계화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조직과 운영 능력, 자본금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로메 아다마 농업협동조합 연합(Lome Adama Farmers Cooperatives Union)'은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 농가 금융지원, 비료 및 농약 공급,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기계 작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2. 농산물 품질 개선

2.2.1. 수확 후 관리 개선

제2장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곡물류의 수확 후 평균 손실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수확 후 처리 과정과 저장 과정에서 주로 손실이 나타나며, 포장과 운송과정에서도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시설(곡물 저장창고, 포대 등 관련 장비, 선별 설비 등) 지원과 관련 기술(건조, 저장, 선별기술 등)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KOICA에서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암하라주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기능 제고를 통한 농촌지역 가치사슬 강화사업(2025년 완료 예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확 후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과 협동조합 등 조직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에 대해서는 △ 건조 및 저장 방법 관련 교육 실시, △ 농가 내 소형 저장 공간 제공 및 리모델링, △ 포대, 상자 등 저장 및 포장 장비 제공, △ 경운기, 트럭 등의 운송 수단 제공 등 의 소규모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연합)을 대상으로, △ 대형 저장창고 구축 또는 리모델링, △ 선별 공간 및 설비 지원, △ 관련 기술(건조, 저장, 선별 등) 지원 및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농산물 수확 과정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콤바인, 탈곡기 등)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곡물류뿐만 아니라 과일류나 채소류의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수확, 저장, 가공, 세척, 포장 등 1차 가공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

2.2.2. 농산물 품질 개선

에티오피아 농업 가치사슬의 문제점에서도 파악되었듯이, 수확 후 관리의 문제는 농산물의 손실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품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장 과정에서 먼지나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잘못된 포장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농산물의 품질 저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자,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 농산물 공급망의 모든 주체의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는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수확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품질 문제는 수확 후 관리 설비나 기술 의 개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농산물 품질관리 기준이 없거나 가공 단계에서 의 위생관리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에는 유기농 대두 인증 시스템과 실험실이 없다. 일부 해외구매업체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두 수출업자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고 있다(EIAR, 2022).

따라서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 에티오피아 농업연구 청(EIAR)과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국가 차원의 농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기 준을 수립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는 위생관리와 함께 에티오피아의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농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 수립과 품질인증제 도입은 ODA 사업 유형 중 프로젝트형 사업보다는 정책컨설팅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APEX(Korean Agricultural Policy Experiences for Food Security)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이 적절할 것이다.

2.3. 농업역량 강화

2.3.1. 농업기술 지도/보급 개선

농가 또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을 교육하고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 역할은 에티오피아의 농업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에티오피 아의 농업 가치사슬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농가들에 대한 교육과 기술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부분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량종자의 중요성에 대 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개량종자가 원활하게 보급된다면 불량종자로 인한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는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지도 및 보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오히려 협동조합 차원에서 회원 농가들에 대한 농업교육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현지조사 시 방문하였던 '로메아다마 농업협동조합 연합(Lome Adama Farmers Cooperatives Union)'과 '비프투 베르가 낙농협동조합 연합(Biftu Berga Dairy Cooperatives Union)'은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의 농업 지도 및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설(영농교육센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범포(또는 가축사육장) 시설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지원, 교육 및 훈련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2022년 완료 예정)'을 '에티오피아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전 수사업(2022년 완료 예정)'과 연계하여 시설이나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 유할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KOPIA 센터와 협업도 가능하다.

2.3.2. 농업협동조합 활성화

에티오피아 정부는 빈곤 감소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협동조합을 활용해 오고 있다. 현재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에 '에티오피아 협동조합위원회 (Ethiopian Coopertive Commission: ECC)'가 조직되어 있으며, ECC는 협동조합 의 조직 및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EIAR, 2022).

에티오피아는 생산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 과 생산자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연합(Union)으로 구분된다. 2012년 에는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은 24,677개, 협동조합 연합(Union) 은 646개로 구성되어 있었다(Kefiyalew, 2015).

그러나 제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의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운영 자금과 신용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문 관리자가 부족하며,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농업개발의 중요한 주체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 조직 관리 및 운영 교육, 농업교육(재배기술, 농가경영 기술, 시장정보 제공 등)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교육을 받은 협동조합의 관리자는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자(Extension Provider)가 될 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 연합(Union)을 대상으로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지원(금융, 투입 재 지원 등)과 농산물 구매 및 판매, 가공, 유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서비스 자금 지원,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과 기술 지원, 농기계 지원, 유통 및 마케팅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3.3. 농업 전문인력 육성

에티오피아의 농업 생산성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개 인프라 확충, 영농 기계화 등의 하드웨어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천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의 역량 개발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 농업법인 육성 등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사례를 활용하여 에티오피아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스마트 농업 기술, 농산물 가공 기술, 비즈니스 교육, 정보 활용 교육 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예산(육성·지원 기금 등) 확보, 교육훈련시설 구축, 육성 프로그램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단계 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과 농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장 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인력 육성 정책 및 제도 수립은 정책컨설팅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예산이 중장기적인 기간에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기금(Fund) 형태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시설과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이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한-에티오피아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에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며 협력 관계가 격상되었다. 이후 한국의 對에티오피아 투자가 늘어나고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에티오피아 농림업 현황을 분석하고 에티오피아의 국가개발전략, 국 제사회, 국내 개발협력 전략 등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에 대한 농업 분야 개발협 력 전략을 수립·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에티오피아의 농림수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였다. 2021년 기준 에티오피아의 농산물 수출액은 커피·차·향신료(HS 09), 채소(HS 07) 순으로 높았으며, 수입액은 곡물(HS 10), 동식물성 유지(HS 15), 당류·설탕과자(HS 17), 채소(HS 07)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한 작물은 약 1천만 톤을 생산한 옥수수였으며, 옥수수, 고구마, 보리 등의 작물은 60% 이상이 농가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의 생산단계에서의 가치사슬 환경은 열악하다. 농가들의 개량종자와 비료의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계절(건기/우기)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확 후 관리 단계에서는 곡물류의 수확 후 평균 손실률은 24%에 달하고 있다. 수확 후 처리 과정과 저장 과정에서 주로 손실이 나타나며, 포장과 운송 과정에서도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저장 과정에서 먼지나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잘못된 포장

과정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에티오피아 농산물 시장은 중개인의 참여가 높고 시장정보가 부족하며 가격 변 동이 크고 거래비용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은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시설 및 장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10개년 개발계획(2021~2030년)에는 농업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개시설의 확대, 농업 기계화 서비스 확대, 생산성이 높은 소농에 대한 토지 지원 등이 주요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연간 총 작물 생산량을 약 6천만 톤에서 1억 톤으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대 관개 기술 적용 비율을 현행 2%에서 20%까지 증대, 용수 이용 효율을 30%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2016~2020년)의 중점협력 분야에는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티오피아 농업 분야 ODA 지원은 전체 ODA 분야의 4.5%에 그치고 있으며, 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은 17억 6천만 달러를, 우리나라는 1억 2천만 달러의 ODA 사업을 지원하였다.

에티오피아의 농업 가치사슬 현황과 정부 정책,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 국 제사회의 지원프로그램과 전략 등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개발협력을 위한 6개 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 ② 농업 가치사 슬 개선을 통한 채소 다양성 및 자급률 향상, ③ 축산 생산성 및 안정성 향상을 통 한 수출 확대, ④ 주요 식량작물 저장 및 관리를 통한 수급 조절, ⑤ 학교급식, 영양 개선 프로그램 등 식품정책을 통한 영양개선, ⑥ 지속가능한 산림 보존 및 혼농임 업 등을 포함한다.

여섯 개의 개발협력 과제에 대해 에티오피아 공무원과 전문가 등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중요도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와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 활동에서 상위계층(1단계)의 중요도는 투입단계가 0.37로 가장

큰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생산단계의 중요도는 0.24, 유통 및 마케팅 단계는 0.23, 저장 및 가공 단계는 0.16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섯 개의 개발협력 수요분야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주요 곡물류의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에티오피아의 농림업 발전과 국가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중점협력 분야를 \triangle 주요 곡물류 농업 생산성 향상, \triangle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 \triangle 농업역량 강화로 설정하였다.

주요 곡물류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첫째, 관개시설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 중대형 관개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 기존의 관개시설을 활용한 농업용 수로 건설 및 보수, △ 물관리 시스템 구축, △ 이용자 조직 활성화등의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 투입재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triangle 종자 및 비료/사료 관련 R&D 지원, \triangle 종자 및 비료/사료 생산 지원, \triangle 농가보급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셋째, 영농 기계화를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 또는 협동조합 연합(Union) 단위에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보급하고, 농기계 운용 및 부품 수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음 단계로 농업협동조합은 회원 농가(또는 회원 조합)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작업 대행, 농기계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농산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 수확 후 관리 개선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연합)을 대상으로, △ 대형 저장창고 구축 또는 리모델링, △ 선별 공간 및 설비 지원, △ 관련 기술(건조, 저장, 선별 등) 지원 및 교육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관련 연구기관과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 (EIAR)과의 협력을 통해 에티오피아 국가 차원의 농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ODA 사업 유형 중 프로젝트형 사업보다는 정책컨설팅 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농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에티오피아 정부 차원의 농업 지도 및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설(영농교육센터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시범포(또는 가축사육장) 시설 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지원, 교육 및 훈련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산자 협동조합(Primary Cooperatives)을 대상으로는 금융지원, 조직 관리 및 운영 교육, 농업교육(재배기술, 농가경영 기술, 시장정보 제공 등)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업교육을 받은 협동조합의 관리자는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교육을 실시하는 지도자(Extension Provider)가 될수 있다. 한편, 협동조합 연합(Union)을 대상으로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지원(금융, 투입재 지원 등)과 농산물 구매 및 판매, 가공, 유통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관련 정책 및 제도 수립, 예산(육성·지원 기금 등) 확보, 교육훈련시설 구축, 육성 프로그램 및 세부 운영 계획 수립 등 단계적으로 접 근해야 하며,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과 농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관계부처 합동. (2016). 에티오피아 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21).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 관계부처 합동. (202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 김선정, 김영환. (2021). "개발도상국이 인식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쟁점: 에티오피아 실무자와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4호. pp.149-175.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1). 2022 에티오피아 진출전략.
- 박영호, 곽성일, 정지선, 장종문, 전혜린. (2012). 아프리카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KIEP 정책연구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현, 강호상. (2016). "에티오피아 산림협력 방향."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39호. pp.1-15.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2019). 에티오피아 임업현황.
- 원소연. (2011). "에티오피아의 행정체계." (최신)외국법제정보. 제4호. pp.110-119. 한국 법제연구워.
- 아프리카개발은행 아시아대표사무소. (2016). 아프리카 식량 보급: 농업 변혁을 향한 여정(한국어판).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
- 외교부. (2019). 2019 에티오피아 개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아프리카과.
- 이진상, 변웅. (2012). "동부아프리카 2개국(에티오피아, 케냐)의 사회경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연구. 전략지역심층연구". 제12권 제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현묵. (2014). "에티오피아 농업 실태 및 전망." 세계농업. 제167호. pp.109-119.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 주동주, 차문중, 권율, 문종철, 신윤성, 안옥윤, 윤정현, 강지현, 홍진기, 이두희, 김영수, 강우진, 김대용, 우혜영, 정세린, 김지원, 박예린, 이종헌, 박수경 … 김혁황. (2012). 한국형 ODA 모델 수립: I. 총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업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영출, 김학실. (2019).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있어서 국가협력전략의 역할과 향후 개선 방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3호. pp.271-296. 한국자치행정학회.

- 한국국제협력단. (2020). KOICA 대아프리카지역협력전략.
- 허장, 석현덕, 차원규, 이윤정, 정동열. (2018).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재희, 김사랑, 이성우. (2013). "농업발전단계 분석을 통한 아프리카 수원국 중심의 국제 농업개발협력 방안 연구." 농촌계획. 제19권 제4호. pp.33-46. 한국농촌계획학회.
-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2016). Feed Africa: Strategy for Agricultural Transformation in Africa 2016-2025.
- African Development Bank(AfDB). (2021). African Economic Outlook 2021 From Debt Resolution to Growth: The Road Ahead for Africa.
- Amentie, T., M. Eshetu, Y. Mekasha. & A. Kebede. (2016). "Milk Postharvest Handling Practices across the Supply Chain in Eastern Ethiopia." Journal of Advanced Veterinary and Animal Research. 3(2). pp.112-126.
- Anagaw, B.K. (2021). "에티오피아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실업: 코로나19가 저소득국 에 미친 영향." 국제노동브리프. 제19권 제6호. pp.9-22. 한국노동연구원.
- Bachewe. F.N., B. Minten, F. Tadesse. & A.S. Taffesse. (2018). The Evolving Livestock Sector in Ethiopia: Growth by heads, not by productivity. ESSP Working Paper 122. EDRI, IFPRI.
- Banjaw, TD. (2017). "Review of Post-Harvest Loss of Horticultural Crops in Ethiopia, its Causes and Mitigation Strategies." Journal of Plant Sciences and Agricultural Research. 2(1). pp.1-4.
- Befikadu, D. (2018). "Postharvest Losses in Ethiopia and Opportunities for Reduction: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s: Basic and Applied Research. 38(1). pp.249-262.
- CSA(Central Statistical Agency). (2018). Agricultural Sample Survey Reports on Area and Production of Major Crops. Addis Ababa, Ethiopia.
- Central Statistical Agency(CSA). (2021). Agricultural Sample Survey 2019/20 Report on Area and Production of Major Crops for Private Peasant Holdings, Meher Season, Volume I. Central Statistical Agency, Addis Ababa.
-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EIAR). (2022). Research Report on Supporting

- Stud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for Ethiopia. (미발간).
- EU. (2014). EU RESET Programme(EU Resilience Building in Ethiopia), Concept Note: Linking EU's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context of resilience building: The case of Ethiopia).
- FAO. (2022). Land statistics and indicators: Global, regional and country trends, 2020-2022. FAOSTAT Analytical Briefs. 48.
-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2016). National Nutrition Program (NNP II) 2016-2020 Ethiopia.
-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ssion. (2021). Ten Years Development Plan: A Pathway to Prosperity 2021-2030.
- Hengsdijk, H. & W.J. de Boer. (2017). Post-harvest Management and Post-harvest Losses of Cereals in Ethiopia. Food Security. 9(5). pp.945-958.
- ICCO. (2020). Innovation Catalogue.
- Kefiyalew. B. (2015). "Assessment Of The Role Of Co-Operatives In Small Holder Dairy Production And Marketing(The Case Of Biftu Berga Dairy Cooperative Union, Oromiya National Regional State, West Showa Zone, Ethiopia)." A Thesis For Master Degree. Ignou The People'S University.
- Kummu, M., H. de Moel, M. Porkka, S. Siebert, O. Varis. & P.J. Ward. (2012). Lost Food, Wasted Resources: Global Food Supply Chain Losses and Their Impacts on Freshwater, Cropland, and Fertilizer Use.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438. pp.477-489.
- OECD. (2020). Rural Development Strategy Review of Ethiopia: Reaping the Benefits of Urbanisation. OECD Development Pathways. Paris.
- Ministry of Agriculture. (2020). General Programme Implementation Manual: Productive Safety Net Programme(PSNP). Addis Ababa.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MoANR). &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MoLF). (2016). Nutrition Sensitive Agriculture Strategy. Addis Ababa.
-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MEFCC). (2018). National Forest Sector Development Program, Ethiopia Volume II: Program Pillars, Action Areas and Targets.

- USAID. (2019). Global Food Security Strategy(GFSS): Ethiopia Country Plan 2019-2023. Feed the Future.
- WIDE. (2014). Farming and Value Chains -WIDE Discussion Brief. 2(5).
- The World Bank. (2015).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Project Appraisal Documents on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248.3 Million to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for a Second Agricultural Growth Project.

[보도자료]

The World Bank 보도자료. (2020. 4. 16.). "Ethiopia Poverty Assessment: Poverty Rate De clines, Despite Challenges."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 2. 21.). "2022년 에티오피아 경제의 향방은?"

[온라인 자료]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eNara/main/EnaraMain.do;jsessionid=vq RbXW89M5rSrLrwUICvFcXEtppkVYq8 FMU3E8r.node11). 검색일 2022. 8. 5.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PP). 검색일: 2022. 8. 5.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QCL). 검색일: 2022. 8. 5.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https://www.pm o.gov.et/). 검색일: 2022. 7. 11.

Mapsland(https://www.mapsland.com/africa/ethiopia). 검색일: 2022. 5. 23.

OECD. Stat(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2. 6. 15.

OECD. 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CRS. 검색일: 2022. 7. 1.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2. 10. 4.

- UNCTADStat(https://unctadstat.unctad.org/wds/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sCS_ ChosenLang=en). 검색일: 2022. 5. 25.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MNG). 검색일: 2022. 5. 27.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s(https://hdr.undp.org/data-center/human-development-index#/indicies/HDI). 검색일: 2022. 8. 5.

World Bank Climate Change Knowledge Portal(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ethiopia/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2. 5. 27.

[인터뷰]

Kassaye Cheru(에티오피아 로메 아다마 협동조합 연합 대표). (2022. 8. 21.~28.). 에티오피아 현지.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에티오피아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Ethiopi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